(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ONTARIO

JAN 25 1982

No. 730 1982년1월25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January 25,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 移民祖上 외로운넋 위로

## 하와이서 追慕祭 韓美인사등 참석 세계 평화등 祈願 위령제도

◇한미수교 100주년을 맞아 하와이서는 「이민조상 추모제」가 열렸다.

(하와이지사)조상숭배의 동양적 미덕을 지닌 한인들은 새해 제야(섣달 그믐밤 12시)와 추석등 명절에는 차례(茶礼)를 지내고, 성묘하는등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오고있다.

구정(음력설 1월24일)을 맞아, 또한 한미 수교(修交) 100돌을 맞아 79년전인 1903년1월13일 한인이민자가 미국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을 기념하는「이민조상추모제」가 지난 16일 상오 하와이 알라오니공원의 맥코이·파빌리온 시공회당에서 열렸다.

하와이 한국성인 교육회(이사장 박영진)이 주최한 이 행사는 이병원 하와이대학 음악과 교수, 현경협 한인기독교목사회장, 기대원 대원사 주지, 아리요시 하와이주 지사 대리, 대니홍 주검찰총장 등등 500여명의 한·미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추모제 집전은 이상국집행위원장의 개식선언에 이어, 낯선 이국땅에서 숨진 이민조상및 순국선열들을 위한 묵념이 있었고, 조상들의 고혼을 위로하는 축문 낭독, 추도사, 분향, 기도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행사에 이어 17일에는 '역시' 한미수교1백주년기념및 세계평화를 기원한 수륙제(위령제)가 속개됐다.**

한국달마회, 하와이달마사, LA달마사가 마련한 이 행사에는 불교신도및 하와이 교포 250명이 하와이주정부가 제공한 로얄·프린세스호(150톤급)에 타고, 와이키키 앞바다를 돌며최초 이민조상들이 쓸쓸히숨져간 넋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는 중명법사로 혜미, 벅암, 대운 스님이 참석했으며, 법주는 숭산해원 스님, 집전위원장으로는 적광 스님등 많은 불교관계자가 참석했다.

# 시틀러 필라델피아로 이적

## 립스와 분쟁해결 21일부터 출전

이적문제로 말썽이던 메이플립스의 전주장 대릴·시틀러(31세)는 필라델피아·플라이어즈로 이적, 20일 현지도착, 21일 부터 플라이어즈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다.

공항에서 플라이어즈 의 주장 빌·바버부부의 영접을 받은 시틀러부부는 집을 마련할 때까지 바 버의 집에 머물면서 경기에 출전한다.

립스팀은 19일 2명의 필라델피아팀 세컨드 드래프트와 또 하나의 선수를 고려한다는 조건아래 11년경력의 시틀러를 방출했다.

현재 연봉 19만 5천달러를 받고있는 시틀러는 립스와 11년전 계약당시 No trade(이적불가)조항을 삽입, 그는 실가치보다 적은 돈을 받아왔다.

시틀러는 이조항을 없에는 대신 이적할 상대팀 으로 필라델피아와 미네소타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립스에게 제시했다.

립스는 시틀러를 이미3년전부터 내보려고 했으나 이들 두팀과 협상에 실패했었다.

시틀러는 병을 핑계로 12월중순이래 출전을 거부해왔다.

"아프다고 경기에는 안나오는 친구가 광고에는장도 출연한다"고 시틀러의 크라이슬러 광고출연을비난하던 메이플·립스 구단주 해롤드씨는 마침내 필라델피아와 합의,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했다.

2명의 세컨드·드래프트중 하나는 81년에필라델피아가 뽑은 리·코스텔로(18)로 지금은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대학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두번째 세컨드·드래프트는 필라델피아가 하트보드 로부터 사들인 82년 드래프트에서 23위내지 24위급선수이다. 이번 협상은 젊은 선수로 대치, 새 출발을하려는 립스나 시틀러의 경험을 살려 NHL우승을노리는 필라델피아에게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드래프트는 프로스포츠에서 팀간의 과열경쟁을막기위해 팀들끼리 순서를정해 프로에 첫입문하는 선수들을 뽑는 제도. 하키 팀들은 전년도 순위가최하위인 팀이 선수선발 우선권을 갖고 하위에서 두번째팀이 그다음 우선권을 갖는데 NHL에서는점점 젊은 선수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립스와 가까스로 협상에 성공, 필라델피아로 이적, 21일 몬트리얼과의 경기에 출전한 시틀러는 이 경기에서 한골도 기록치 못했고, 그의팀은 4:2로 패했다.

## 한국불우고아 돕는 미국청년

# 말타고 대륙 횡단

한국 불우고아및 정박아 모금을 위해 미국청년이 말을 타고 미대륙횡단을 하고 있다.

커비·스네블리(25·아이오와출신)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모금운동을 위해 LA를 떠나 LA-휴스턴간의 1천6백마일을 52일만에 여행했다.

10번 프리웨이를 따라미대륙의 남부를 횡단하는스네블리는 총2천8마일의 여정중 앞으로 1천2백마일을 남겨놓고 있으며, 마이애미주의 잭슨빌에서부터는 95번 프리웨이를 따라 남하할 예정이다.

LA다우니에 거주하고있는 커비·스네블리가 한국과 인연을 맺기는 지난 73년부터 3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유도학교에 재학했으며 태권도, 합기도등 유단자 자격을 받기도 했다.

불구자인 두 동생을 두고 있는 스네블리는 한국에 있는 동안 장진남 목사와 부인 심창순 여사가 경영하는「사랑의 집」에 관심을 갖게 됐다.

「사랑의 집」은 과거 아마추어복싱 미들급 대표선수였던 장목사와 심여사가 불구아, 정박아등 10남7녀를 모두 자녀로 입적, 현재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돌보고 있는 것.

이에 감동한 스네블리는 이들의 학교와 건물모금운동을 돕기 위해 이번 대륙횡단길에 나선 것이다.

휴스턴 도착 직전 지방신문의 보도를 본 한 농부가 먼 길은 당나귀가 적격이라고 권해 이 당나귀로 휴스턴에 왔다. 외눈배기인 이 당나귀는 그동안 정이들어 「메리」라고 이름까지 붙였다고 한다. 그는"메리로 마이애미까지 무난히갈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위험을 막기 위해 라이플 한자루와 펠리트·건(위협용 권총)을 소지한 그는

### 말 다섯번 갈아타고 죽을 고비도 넘겨

마리화나를 요구하는 불량배를 총으로 쫓기도 했으며, 말이 날뛰는 바람에차에 치일뻔한 아슬아슬한순간을 수없이 겪기도 했다.

또한 이번 여행 후에는 가수 존·덴버도 한국에 초청 모금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LA를 떠날 당시 스네블리는 이번 여행길의 유일한 동반자인 말을 단돈5백달러에 구입했다.

휴스턴까지 오는 중간에 샛길을 찾다가 산속 에서 말이 부상, 꼼짝하지 못하자 어느 여인이 말을 바꾸어 줬다.

두번째 말 역시 지난 12월10일 도중에 숨졌으며, 5번이나 말을 갈아 탔다고 한다.

스네블리는 오는 3월1일 마이애미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랑의 집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419-1.

커비스네블리의 LA연락처는 Community Bank Stonewood Mall Downey Ca 90241

(휴스턴지사-천신영기자)

◇한국 불구아돕기 모금운동차 말을타고 대륙횡단중인 커비스네블리—총 2천8백마일의 미대륙 남부횡단길에 휴스턴에 들른 스네블리가 10번도로를 따라 마이애미로 가고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5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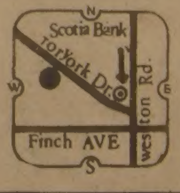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옆)

南國酒家
SOUTH CHINATOWN RESTAURANT
* 전통적인 칸토니스 중국음식
* 해산물(게 )
* 팔진두부
* 각종국수
* 천엽
* 뱅쿠엘 써비스
OPEN HOUR
월~목 11:30~11:00 P.M
금 11:30~2:00 A.M
토 1:00P.M~2:00A.M
일 1:00P.M~10:00P.M
주소 : 131 A DUNDAS W. (던다스×유니버시티)
전화 : 977-3452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2ND CLASS MAIL NO. 5... MAIL 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 실업자 2개월간 10만명 더생긴다

## 캐나다제조업자협회, 예산안 비난

(오타와)앞으로 2개월간 캐나다에서는 10만명 이상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캐나다 제조업자협회가 20일 말했다.

제조업자협회의 로렌·티볼트 부회장은 이날 지난해 8월이후 현재까지 220만 제조업 종사자중 2십3만5천명이 직장을 잃었으며, 사태는 점차 악화될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당이 주도한 여당자유당의 현 예산안에 관한 청문회에서 티볼트 부회장은 "전례로 보면 매년 5,6월중에 경제가 대체로 풀리기는 하나 그전에 실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작년11월 발표된 예산안은 기업의 투자확장 및 현대화에는 자극을 주었을지 모르나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감을 잃게 해 국제시장에서 캐나다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악순환을 계속하게 만들었다고 논평했다.

## 두 원자력발전소 앞당겨 완공

(서울 21일연합)21일 동력자원부는 내년 1월까지 국내 제2, 제3의 원자력발전소가 될 미국산 고리 2호와 캐나다산 월성1호의 건설을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소식통에 의하면 정부는 용량 650,000 킬로와트(KW)인 고리2호와678,000 KW인 월성1호의 건설을각각 1년과4개월씩 앞당겨 완공할 예정이다.

이 두 원자력발전소는금년7월에 시험가동을 한다.

동력자원부의 추산에 의하면 이 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로 연평균 1800 억원(미화 25,700만달러) 의 전력비가 감소된다.

이 발전소 건설로 한국은 해외석유 수입의존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 전망된다.

# 범죄행위 유전

## 덴마크 심리학자 주장

범죄행위가 유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노프·메드닉 코펜하겐 심리학협회장은 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과학발전협회 연례회의에서 극소수의 범죄자들이 대부분의 중범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히고 부모의 범죄행위와 자식의 범행가능성간에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메드닉씨는 덴마크의 입양아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친아버지가 범죄자인 경우 자식의 범행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3배가량 높으며 3천687명의 쌍동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일란성 쌍동이의 경우, 한쪽이 범죄자이면 다른 한쪽은 35%의 범행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성 쌍동이의 경우는 범행가능성이 일란성 쌍동이보다 3배가량 낮다고 말했다.

메드닉씨는 코펜하겐의 성인 3만2천명을 조사한 결과 43.4%의 강력 사건이 109명의 범죄자들에 대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 심리학교수이기도한 메드닉씨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범행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조기발견하면 범죄율 하락에 기여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 13년만에 한국인아버지 찾아내

## 보트피플, 미국거주 김.느구엔양

(속보)〈시카고지사〉월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공군대위(당시)와 월남여인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와 생이별해야 했던 김·느구엔양(13)이 13년만에 아버지를 찾았다.

월남전의 열기가 뜨겁던 지난 68년 디엔비엔호아지역서 임무를 수행중이던김영만 공군대위는 주월한국군사령관실에 근무하던 엔·느구엔 여인과 결혼, 69년 김양을 낳았다. 이해 김대위는 한국으로 전임발령을 받았고, 70년 주월한국대사관을 통해 부인과 딸의 입국허가서를 보냈으나 엔여인이 신병중이어서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인 아버지를 찾은 김·느구엔양

## 김대위·월남여인의 딸

## 어머니는 월맹군에 피살

전황이 악화하자 엔여인은 김양을 먼저 세인트루이스 이모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뒤에 출국하려하다 월맹군에 피살된것.

발랄한 소녀로 성장하면서도 김양은 항상 한국인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이를 딱하게 여긴 김양의 이모가 지난해 9월 시카고총영사관에 김영만씨를 찾아줄 것을 호소했으나, 조회결과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었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한국일보》81년11월16일자) 이를 본 김영만씨의 동생(뉴욕 거주)이 이 소식을 김씨에게 알려, 구랍 12일 김씨는 13년만에 꿈에 그리던 딸과 감격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김씨는 제대후 대한항공 여객기 조종사로 근무, 현재 미주노선을 운항하고있으며, 구랍12일 알라스카앵커리지에 급유 기착했을때 세인트루이스의 딸과 통화하게된 것이다.

이사 하셨읍니까?
● 주소변경을 잊지 마십시오.
독자번호와 새주소를 곧 알려주세요.
한국일보 독자부
533-2361-4

# 파리주재 온주대표로 부임

## CBC의 뉴스캐스터 클락슨

◇에이드리엔·클락슨

CBC방송의 뉴스해설기획프로 제5재산( Fifth Estate)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드리엔·클락슨(42)이 5월부터 온타리오를 대표한 파리주재 문화사절로 일하게 됐다.

클락슨은 파리의 온타리오·하우스를 본거지로 해서 프랑스를 비롯, 이탈리아, 스페인, 폴투갈등과의 무역, 관광, 문화,교육 교류진흥을 도모한다.

온타리오주가 프랑스에 이같은 사절을 파견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클락슨은 1962년부터 63년까지 소르본느대학 에서 공부한 이후, 매년 여름을 프랑스에서 지냈고, CBC에서는 유럽통으로 통했다.

"새 직장은 나로 하여금 조국 캐나다와 온타리오주를 위 기여할 수 있는기회가 될 것같아 기쁘다" 클락슨은 현재 온타리오주와 프랑스간의 교역량은연간 10억달러밖에 안되지만 이를 크게 늘릴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주간女性

# 경제생활과 우리 ④

투자상담편 ∥ 담당 강상우(메릴린치 증권회사 근무)

# 금값은 무엇이 결정하나? II

## — 수요와 공급면에서 본 요인 —

금의 공급(단위 :

| | 1976 | 1977 | 1978 | 1979 |
|---|---|---|---|---|
| 남아연방 생산 | 713 | 700 | 706 | 705 |
| 기타국 생산 | 252 | 268 | 263 | 256 |
| 소련판매 | 300 | 340 | 430 | 240 |
| I.M.F.판매 | 200 | 188 | 227 | 173 |
| 미국재무성 판매 | - | - | 126 | 365 |
| 기타 공식판매 | 115 | 154 | 88 | 96 |
| 합 계 : | 1,580 | 1,650 | 1,840 | 1,835 |
| 온즈당 가격(US) | 125 | 148 | 193 | 307 |

금값은 또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위 표에 보듯이 생산측면에서 보면 남아연방이 자유진영 금생산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다. 금이 상승한다고 보는 측은 남아연방이

(1)금을 산유국들 처럼 무기화한다.

(2)흑백분규의 격화로 폭동이 나면 금생산이 감소된다.

(3)흑백분규의 해결을 위해서는 흑인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원과 복지사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금값을 올려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보유한 금을 방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소련I.M.F. 미국의 정책이 남아연방의 생산과 아울러 결정적 역할을 한다.

소련은 서방세계에 금판매를 해오다 아프칸 침공 직전 금판매를 중단했다.

지난회「금값은 무엇이 결정하나」(1)회분의 중간부분에 아래의 몇문장이 누락됐다.

「이 중에서도 금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률과 인플레이숀률의 상관 관계이다. 금이 $2,400로 올라 간다고 예측되었을 당시는 년 이자률이 12%, 인플레이숀률이 18%였을 당시와 경제상황하에서 였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이자소득을 취할 경우 이자소득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12%를 불린다 할지라도인플레이숀률 18%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좋은 곳에 투자를 찾다 보니 금이나 주식 부동산등으로몰리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 인해 금은 상승세를 계속했으나 이미 소련은아프칸 침공이 금을 폭등시키리라는 것을 알고, 이런 조처를 취했다는 것이다.

최근와서는 소련의 흉작으로 막대한 식량구입자금조달을 위해 금을 다시 서방세계에 방출하고 있으며, 이는 금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I.M.F.는 월별로 실시해 오던 금의 공매를 1980년에 중단했다.

미국 재무성은 금값이상승하면 미국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므로 금값을 안정시키고,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목적으로1978년부터 금의 공매를 실시했다. 그러나 금의 보유량이 현저히 줄어들자, 최근에는 금의 공매를 거의 중단한 상태다.

이상 생산이나 보유금의 방출면에서 볼 때, 금의 공급은 넉넉하지 못하고,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형편이다.

수요면에서는 세계 경제의 침체와 불황으로 귀금속의 판매가 현저히 줄었으며, 금의 소모량도 많이 줄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는 아직도향방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다.

수요와 공급측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도고려한다. 광산에 따라 원가는 몇십달러에서 몇백, 천달러로 노임과 광산의 질에 따라 다양하다. 원가가 금값보다 낮으면 수지가맞지 않던 광산도 다시 문을 열고 값이 하락하면원가 맞지 않은 광산은 폐광을 한다. 지금 알라스카에는 폐광되었던 많은 금광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 이처럼 값이 높으면 더 많은 금이 생산되어 값은 떨어지고, 값이 떨어지면 문을, 닫는 광산이 불어나 공급부족으로 금은 다시 올라간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면에서조차도 금이란 떨어지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어있다. 이런 금의 가격변동 고려할 때 금에 투자를 하려면 싸이클을 좇아 적절한 시기에 사서 적절한 사기에 팔아야 한다.

# 30弗내면 하늘의「별」을 산다

## 토론토「국제 별등록社」서 異色판매

◆자신의 별을 갖고있는 유명인들.(뒷줄 왼쪽부터) 찰스황태자부부, 자니카슨, 리차드·버튼.(앞줄왼쪽부터)엘리자베스여왕 모친, 잉글버트·험퍼딩크, 배리·매닐로우.

## 별모양과 이름 새겨진 證明書에 位置담긴 地圖도

## 카슨, 버튼등所有…찰스皇太子부부도 膳物로 한쌍

30달러만 내면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중 하나가 자기것이 된다.

자니·카슨이 하나 가졌고, 리차드·버튼도 하나 가졌고, 가수 배리·매닐로우와 잉글버트·험퍼딩크는 각각 두개씩 가졌다.

엘리자베스여왕의 모친은 80회 생일선물로 하나 받았고, 찰스황태자와 다이아나황태자비는 결혼때 한쌍을 역시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이 별들을 파는 사람은 누구인가.

토론토에 있는 국제 별 등록회사 (International Star Registry).

이 회사를 세운 44세의 캐나다인 아이보·다우니씨는 록스타로부터 왕족에 이르기까지, 30달러만 내면 그들의 훌륭한 이름을 원하는 별에 부쳐준다고 선전한다.

그리고 그 증명으로서 금빛 별모양과 새로운 별이름(즉 고객의 이름)이 새겨진 증명서와 함께 그 별의 위치가 나와있는 우주지도를 보내준다.

그뿐아니라 그 별의 이름은 스위스의 금고에 넣어져 영구보관되고, 국회도서관목록에도 오를것이라고 약속도 함께 해준다.

국제별등록 회사의 미국지부(일리노이주 노스필드)에서 일하고있는 50세의 필리스·모슬씨는『이것은 완벽하게 유효한 제도』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어떤 학자들은 우편주문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는 이 비즈니스를「스타게이트」또는『스타스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스와스모어컬리지의 천문학자 울프·하인츠씨는『그것은 사기』라고 잘라말한다.

그들은 또 지난 79년부터 시작하여 작년에만 3만개이상의 별을 판(?) 이 회사가, 오랫동안 그들만의 독점이었던 우주분야를 침범하고 있다고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

천문학계의 전통에 의해, 수많은 별들중 온전히 자기이름으로 불리는 별들은 수십개에 불과하다.

시리우스, 베가, 비틀저스, 앨데버런등의 밝은 별들을 제외하고는, 이름의 첫문자나 그 별의 위치, 형태, 밝기등을 나타내주는 숫자로 그것도 책자마다 모두 틀리게 기록되어있다.

예를들어 독수리별자리에 있으면서 지구에 가까와졌다가는 또 멀어지곤하여 현재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한 별은 케이스·웨스턴 천문회사에서 나온 책자엔 SS433으로 명명되어있다.

이 책에서 SS433이란 이름으로 부쳐진것은 단순히 그 별이 이책에 수록된 4배33번째의 별이기때문.

그러나 이 같은 별이 별자리기준목록에는 VI343애 킬래로 명명되어있다.

만약 캐털로그마다 별들의 이름이 틀릴 경우에는, 세계천문학자들의 모임인 세계천문학자협회 (IAU)에서 그것을 조정한다.

IAU는 별들의 이름뿐아니라 전통적으로 발견자에 의해 부쳐진 혹성, 달 또다른천문체들의 이름도 감독한다.

따라서 최근 10년동안 태양계의 성공적인 대발견으로 IAU의 명명위원회는 오버타임 근무까지 해야할 정도.

그들은 18개혹성과 달 등의 분화구, 산 평지등에 일일이 이름을 달아야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천문체에 이름을 다는 일에까지도 정치가 개입되곤한다.

소련은 새로 발견된 혹의 이름에 그들의 혁명전사 이름 부치기를 좋아한다.

그런가 하면 작년 여름에는 미국과 서부유럽국가의 학자들이 어느 별에 안드레이·사하로프의 이름을 달아주므로써 반격을 받기도했다.

'전문적인' 천문학자들도 센티멘탈하게 이름을 부치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천문체들을 발견해낸 칼텍의 찰스·코왈교수는 자기부인의 고향인 나폴리의 이름을 따서 나폴리타니아라고 어느 별의 이름을 명명했는가하면, 부인의 이름을 따서 넨시라고 별이름을 정한 학자도 있다.

로웰연구소의 에드워드·보웰은 자신들의 이름을 별에 부침으로써 영구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나쁘다고는 보지않는다고 말한다.

이름이야 어떻든간에 그 누구도 실제로 별을 소유할수는 없기때문이라는것이 그의 이야기.

그러나 그렇다고해도 천문학자들은 별등록 회사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다.

IAU의 기록위원회회장인 스와스모이·하인츠씨는『국제별 회사의 명명이 세계천문학자들의 인정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뿐아니라 대부분의 별들은 빛이 너무 약해『별을 샀다하더라도 자기별이 어디 있는지 찾기힘들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국제별등록 회사의 다우니씨는 천문학자들이 한가지 사실을 모른다고 말한다.

『우주여행이 일상화 될때가 오면, 엘톤·존 별에 갔다가 소피아·로렌 별에가는 것이 22번별에 갔다가 109번 별에 가는것보다 훨씬 재미있을것입니다.』

BAKERY DELITE
A CANADIAN FRANCHISE
20 LOCATIONS
* 높은 수입의 빵가게
* 후랜촤이스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 완전히 훈련시킵니다.
* 모든 재정문제를 조정합니다.
* 우선 상업지대에 투자가능.
* 현금투자 35,000달러
* 예상첫해 매상 150,000달러
BAKERY DELITE
• 온타리오 전역에 좋은위치
• 이윤좋은 각종 식빵 제조업
• 완전 자동 OVEN
김 영 창
전화 : 883—4550
1—826—7150

개업안내
상점을 경영하시는 분들을위한 회소식!
금번 한인연합상사(주)에서는 세계각국에서 성행중에있는 비데오 게임 머신을 다량 확보하고 지난1월18일 United Video Ltd 를 설립하였읍니다. 특히 소매상을 경영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과외수입을 올릴수있는 회소식이오니 관심있으신분의 문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①United Video Ltd 630—0313
②한인연합상사(주) 251—6578—9
United Video Ltd.
대표이사 김 현 모

직원모집
한국에있는 CITI BANK한국 지점에서 근무하실분 구함.
★토론토대학 학생일 경우=
* 자 격 : 토론토대학 4학년(졸업반) 재학생으로 비지네스나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
* 응모요령 : 토론토대학 안에있는 Placement Centre(344 Bloor St. W.4층)에 직접 가보실것
※U.C.P.A 용지나 이력서를 제출해야함
* 기 간 : 1982년1월25일부터
* 인 터 뷰 : 1982년2월1일
★토론토대학 학생이 아닐경우=
다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아래주소로 신청하기 바람.
Maureen Carty Citibank, N.A. IB/ Recruiting, 399 Park Avenue 5th Floor, Zone 14 New York, New York 10043
* 모집인원 : ○○명
* 문 의 처 : 298—0432(천명호)

〈스포츠단상〉

# 그레츠키, NHL사상 최고대우

## 15년간 봉급만 2천만달러

"토론토가 그레츠키를 4:1로 깨고 있어" 지난 16일밤 필자가 우리 교포 어린이 하키팀 「와일드·캣츠」 취재차 웨스트아레나에 들어섰을때 한소년이 전해준 말이다.

선수의 이름이 팀의 이름처럼 불리어지는 것을볼때 이제 겨우 20세의 웨인·그레츠키의 명성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1월26일로 21세 생일을 맞는 그레츠키는 20일 에드먼턴에서 구단주로부터 앞으로 15년간 2천만달러의 봉급을 받을 것과 큰쇼핑센터의 건물및 운영권을 생일선물로 받았다.

그가 속한 에드먼턴·오일러즈의 구단주 폭크링톤은 그레츠키의 아버지 월터씨가 동석한 가운데 이같은 새계약을 맺었다고발표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인기스포츠주간지 "Sporting News"는 지난 연말호에서 해마다 야구선수를 뽑던전통을 깨고 그레츠키를 81년의 스포츠맨으로 뽑을정도로 그의 인기는 북미전역에 퍼졌다.

그레츠키가 캐나다 하키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그의 나이 10살때인 1971년도부터이다.

토론토에서 약 80마일떨어진 브랜포드가 고향인그레츠키는 5살때부터 고향팀인 스틸러에서 하키를시작했다.

그후 5년동안 모두 369골을 기록하여 그의 팀을 온타리오주의챔피온으로키우면서 매스미디아의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토론토·선」지의 체육부장 존·이아보니는 71년 10월28일 스포츠란의 전페이지를 할애, "스타탄생" 이란 제목아래 그레츠키소년에 관한 특집을 실었다.

그레츠키를 두고 지금도 매스미디어들이 「신동」「어린애」하고 부르는 것은 아직까지도 NHL의 주류를 이루는 선수들은 24~25세가 평균연령이기 때문이며, 그가 받게될 백만달러이상의 연봉은 말할 필요도 없이 파격적인 대우이다.

지금까지 최고연봉을 받은 선수로 알려진 LA킹의 마샬·디온이 연봉 60만달러이고 지금은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메이플립스의 전주장 대릴·시틀러도 19만달러선이고 보면 백만달러가 어느정도숫자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도 그레츠키가 세븐·업(7-Up)등 광고모델이나 그의 싸인이 들어간 셔츠, 청바지및 각종기념품등 9개회사에서 광고모델로 벌어 들이는 과외수입 또한 이 연봉을 능가한다.

아들은 백만장자가 되었으나 웨인의 부모와 동생들은 아직도 웨인이 태어난 인구7만의 조그마한브랜포드시 오두막집에 살고 있다.

웨인·그레츠키가 스케이트를 시작한 것은 2살때 벨·캐나다 텔레타이프기술자인 월터·그레츠키씨는 큰아들 웨인에게 스케이트를 신겨 매일 5시간이상의 강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아버지뒤에 가려진 엄마의 공은 더욱 크다. 웨인이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태워가고 태워오면서 스케이트날을 갈아주고 스틱을 날려주고 하는것이그레츠키여사의 일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웨인의두녀남동생「케드」와「브렌트」가 하키하는 것을 뒷바라지하며 16년간 하키링크를 매일 출근하고 있다.

그녀가 지금의 남편이며 웨인의 아버지인 월터·그레츠키를 만난 것도 하키장에서 였다.

그레츠키씨는 그당시 주니어B급 하키 선수였는데 "실은 하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키장에서 내 생애를 보낼줄은 미처 몰랐어요."라고 웨인의 어머니 필리스 여사는 말한다.

웨인·그레츠키의 애인은 가수 비키·모세양(19). 에드먼턴의 한 클럽에서 한 마술사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비키양을 웨인이 맨처음 만난것은 2년전 이었다.

비키양은 "북미최고의하키선수와 데이트하는 것은 좋으나 어디를 가도 팬들의 아우성때문에 못살겠다"고 투덜댄다.

(유승민 기자)

◇애인 비키양의 노래부르는것을 붙들고 있는 NHL 넘버원 웨인·그레츠키. 비키양은 그레츠키 보이프랜드는 좋으나 노래만은 글쎄(?)하고 의문을 표시한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소설〉

#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121)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번역

두시간을 꼬박 걸었지만겨우 3마일밖에 못갔다. 오텍이 미끄러져서 바위틈에한쪽 다리가 끼었다.

내가 도우러 달려가보니 그는 아픔때문에 소리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오텍은 총에 의지해서고 통스럽게 절룩거리며 오던길을 다시 돌아오는데 거의 7시간이나 걸렸다. 만일 오텍이 혼자였었다면 날카로운 바위 틈바구니에서빠져나오지 못해 산에 살고 있는 거인귀신에게 붙잡혀 먹히고 말았을것이다. 나의 도움으로 그는 한번도 넘어지지 않고 윈디 베이로 돌아왔지만 발목이 몹시삐어있었다.

귀신들이 존재한다 안한다 하는것을 논쟁하고 싶지 않지만 있을법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간과하지못할 존재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임의대로 구분한두번째의 그룹은 때로 이롭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며 또 때에 따라서는 매우 적의를 품는 귀신들이다.

이들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포파라는 귀신인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아주 작은 난쟁이로 사지가 아주 뒤틀린 장난을 몹시 좋아하는 바렌의 요정(妖精)이다. 이 귀신은 사람들에게 매우 심술궂은마술을 걸기도 하지만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를 빼놓고는 그냥 참아 넘긴다.

아포파가 나에게 부린심술을 나는 아직도 풀 길이 없다.

아땅에 온지 두번째 되는해 어느 가을 오후에 앤디와 나는 윈디베이에 있는 집안에서 차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마치 성난 개가 쥐 한마리를 잡아 입에 물고 흔들어대는 것처럼 그 작은 집이 몹시 흔들렸다. 우리 둘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가 혹시 지진이 일어났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강둑위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렇지도 않았다. 몇마리 의 사슴이 떼를 지어 멀리 강변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었으며 9월 낮은 졸리운듯이 조용하기만 했다.

우리가 어리둥절해 가지고 집안에 다시 들어와 차를 마시려고 자리에 앉자마자 집은 또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다. 식탁위에 있던 잔들이 굴러 떨어지고 서까래에 붙어 있던 스트렛칭 보드가 큰소리를 내며 떨어져 버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놀라가지고 밖으로 다시 도망치듯이 나가보았지만 무엇이 집을그렇게 흔들어 놓았는지 알수가 없었다.

그때 이할미우트 몇사람이 방문차 내려와서 가까운 곳에 텐트를 치고 있었다. 이 이상한 흔들림에대해서 이유를 알아 보려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그들은 나를 멍하니 쳐다만 보고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는 눈치였다. 나는 짜증을 내면서 혹시 지진같은 것을 못느꼈느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한술더 떠가지고 그들이 우리 두 백인에게 장난을 한것이 아니냐고 족쳐대었더니 조금전보다도 더 당황하는 것이었다.

그때 오호토가 생각난다는듯이 "가꾸미의 캠프가 저 언덕위에 있소.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귀신의 장난인것 같으니 아마 그는 알아 맞출 수 있을거요"하고 말했다.

나는 가꾸미의 텐트로가서 그에게 물어 보니 그는 마치 내가 찾아올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금방 대답해 줄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포파라는 귀신의 장난이요. 아포파는 매우 장난이 심하고 심술궂소. 나는 그가 지나갈때 공기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근처 어딘가에 와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소. 틀림없이 당신들의 이글루를 들여다보고 그는 당신들 두 백인이 차를 마시는 것을 목격했을거요. 아포파귀신은 그런 시시한 짓을 보고 놓을하기 좋아합니다. 당신이 보았듯이 그가 웃을 때는 마루바닥과 벽이 흔들립니다."하고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그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이누이트들은 아포파가 백인을 잠깐 놀려본것이 그렇게도 즐거웠던가하고 그의 대단한 익살에 조금 낄낄대고 웃을 뿐 아무런 관심도 없는것 같았다. 이누아라는 귀신도 좀 특별난 귀신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죽은사람들의 유령일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강이나 바위나 초목같은 생명이 없는 대상들의 귀신도 된다. 이누아는 다른 두개의 크기로 나뉘는데 이누아 미꺄꾸니 즉 작은 귀신들 그리고 이누아 앙꾸니 큰 귀신들이다.

(계속)

보험으로보장하며은행보다 예금이자율이항상높은한인신용조합은 각은행의 예금 이자율을 매주, 매일 본지면을 통하여 속보하여드리겠읍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행예금 이자율표 (1982년 1월22일 현재)

| 기관별 / 예금종류 | | 토론토한인신용조합 $500이상 $4,999 | 토론토한인신용조합 $5,000이상 | 일반은행 $1,000이상 $4,999까지 | 일반은행 $5,000이상 |
|---|---|---|---|---|---|
| 정기예금 | 30－59일 | 14.5 | 14.5 | | |
| 정기예금 | 60－89일 | 14 41 | 14 4/1 | 13.26% | 14% |
| 보통예금 | | 13% | | 12% | |

1. 저희 조합은 적은돈도 큰 돈과같이 우대합니다.
2. 저희 조합은 $100,000이상에대한 이자는 별도로 Nego우대 합니다.
3. 저희 조합은 일반은행보다 항상 높은 이자를 드리는것이 영업방침입니다.
4. 모든 예금은 법에 의하여 보험이 보장되고 있읍니다.

토론토한인신용조합
641 A BLOOR ST. W. TEL. 533－9387, 9388

스키강습
접수마감 박두
선착순

퀘벡주의 가장 큰 명산 "세넹"으로

* 1월29일(금)오후6시정각출발(브랜돈 스포츠사 앞)하여 31일(일)귀환(2박3일)
* CHARTER WAY 버스여행 7시간
* 회비 : 개인당 $180(개인별로가면 $280 소요), 11세미만어린이 $50
* LIFT FREE, 강습료 FREE 이외에 스키대여료는 별도(하루$10정도)
* 일류 콘도미늄으로 부엌시설 완비(단 음식은 각자 지참해야함. 쌀, 밥솥 기타)
* 방은 3BED ROOM UNIT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자중 회비 미납자는 접수가 취소될수 있아오니 조속히 회비납부를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 598－3732(이건영), 533－2361(송광호)

주최 : 브랜돈스포츠사·한국일보 사

# 金融기관 대폭縮小개편

## 人員·경비절감 經營합리화
## 중복部署 통합 大部大課로

### 2月 株總 계기로 대규모 人事 예상
### 財務部 지침따라 기존案 일단白紙化
### 各行 本店 部署 5~6개씩 줄어들듯

한국은행을 비롯한 7개국책은행과 5개 시중은행및 信用保證基金등 13개은행과 保險會社, 證券會社등 제3금융권 금융기관들은 ― ▲유사기구의 통폐합과 ▲조직의 축소개편 ▲예산및 경비절감등 經營合理化를 위해 대대적인 經營刷新을 일제히 단행키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①오는 1월말까지 경영쇄신을위한 조직개편안을 자체적으로 마련, 7개국책은행과 保證基金은 財務部에, 5개시중은행은 은행감독원에, 보험단체및 유관기관들은 保險公社에, 증권기관및 유관단체들은 證券監督院에 각각제출하고 ②오는 2월15일까지 재무부와 협의, 최종안을 확정한다음 ③株總이 끝나는 2월말안으로 조직개편을 완료하기로 일정을 잡고 있다。

이에앞서 財務部는 지난15일 姜慶植차관주재로 금융기관事務會議를소집, 금융기관 경영쇄신에 관한 지침을시달했다。

전금융기관에 시달된 이지침은 기구의 축소개편, 인사관리및 인력활용의 합리화, 경비및 예산절감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기구개편에 있어서는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와 유사기능을가진 부서를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大部大課로 개편, 은행조직을 전반적으로 축소정비하고 유명무실하거나 不要不急한海外支社, 事務所, 支店등을폐쇄하도록 하고있다。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任員數를줄이고 불필요한 上位職을 대폭 축소하며 職務分析을 새로해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합리화하며 특히本支店간에 균형있는 人力활용이 이루어지도록하고 있다。

經費節減에 있어서는 고급승용차의 구입억제, 호화롭고 값비싼 집기 비품구입 억제, 불필요한 부동산및 장비구입 억제등을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경영합리화를 꾀하도록하고있다。

지침시달에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부분적으로손댔던 기구축소를 일단 백지화시킨가운데 經營刷新을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20~30개에달하는 各行 본점部署가 5~6개이상씩 축소될것으로보이며 특히 任員數가 많이줄어 오는2월 市銀株總을 계기로 금융계에 대규모적인 인사이동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기구개편은 정부기구축소및 공공기관 조직개편과 흐름을같이하는 것으로 政府, 企業, 家計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리화·능률화를통해 경제의 안정적성장에 기여하자는데 그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금융계관계자들은 말하고있다。

## 海外여행 預置制실시
### 내달부터 觀光2百·親知방문 百萬원

해외 觀光여행및 친지방문 여행을위한 預置金 拂入제도가 오는3월1일부터 실시된다。

외무부는 19일 오는7월1일부터 시행되는 親知방문및 83년1월부터 실시될 觀光목적여행자를위한 예치금 제도를 확정, 오는 3월1일부터 한국외환은행을 통해 受納, 발권이라고 밝혔다。

여행자의 예치금제도는 지난해 8월 새旅券法발효당시 立法된 제도로 국민저축확대와 여행자가 해외에서 입게될지도모를 不意의 사고등에대비하기위해 마련된것이다。

이에따라 해외親知(內外國人막론)로부터 방문초청을 받았거나 50세이상으로 해외관광을 희망하는 여행자는 여권신청에앞서 예치금을 납입해야한다。

예치금은 정기예금또는 정기積金중 택일할수있으며 액수는 관광여행이 2백만원, 친지방문은 1백만원으로 되어있다。

정기적금가입자의 경우 계약기간전에 출국할때는 殘餘分을 一時에 납입하고 여행할수도 있다。

예치금제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加入대상=8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여행은 50세이상인자에 한하며 예치금납입필증발급당시 50세이상이면 가능하다。친지방문은 친지로부터 초청을받을수 있는자로 年齡제한이 없다。

▲종류및 기간=현재한국외환은행에서 실시중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중 택일할수있으며 기간은 모두 1년이상이다。

▲여행자격부여=1년에 1회, 1口座當 1회이며 출국전에중도解約하거나名義변경시에는여행자격을상실한다。

▲納入방법=정기적금은 입금액을 외환은행으로부터 拂入받으며 拂入者가 계약기간만료전에 출국하려면 잔여액을 일시에 납입하면된다。

▲預置金반환=정기예금가입자는 귀국후 2개월, 납입필증발급일로부터1년경과후 예치금을 반환받을수 있다。정기적금가입자는 귀국후2개월, 계약기간만료전에 출국한자도 귀국후2개월, 납입필증발급후1년이 경과하면 반환받을수 있다。

▲歸國신고=친지방문여권소지자의 여행기간은 6개월이며 관광여권은 3개월。귀국후1개월내에 외무부여권과에 귀국신고를 해야한다。

▲制裁조치=여행조건을위반할 경우 본인은 물론 보증인도 1년이상10년이내에 여권발급또는 記載사항변경의 혜택을 받지못한다(旅券法시행규칙46조)。

◇全斗煥 대통령이 國政자문위원들과 오찬을갖기에 앞서 崔圭夏의장과 인사를나누고있다。가운데는 許政자문위원。

## 1·14經濟조치 補完策설명
### 黨政政策조정회의
### 지하철 早期완공·人口정책도

### 劉總理등 첫 參席

정부와 民正黨은 19일 하오6시 三淸洞 국무총리 공관에서 올들어 첫黨政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당면한 國政전반과 새로운 黨政협조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劉彰順 국무총리서리의 취임이후 첫번째이기도한 이날모임에서 정부측에서는 새해施政방향과 1·14경제施策의 보완 대책에대해 설명했고 民正黨측에선 지하철 早期완공, 首都圈인구정책등에 관한의견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劉총리서리、金埈成부총리、徐廷和내무、李範元법무、鄭宗澤정무1장관、許和平청와대정무제1수석、金在益경제수석비서관、民正黨측에선 李載灐대표위원、權正達사무총장、羅錫晧정책위의장、李鍾贊총무、李漢東黨총재비서실장등이 참석했다。

### 諸問위원과 오찬
### 全대통령 청와대서

全斗煥 대통령은 19일낮國政諮問회의의 崔圭夏 의장을 비롯 자문위원25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함께하며 환담을 나누었다。

이자리에는 劉彰順 국무총리서리와 孫在植 통일원장관이 배석했다。

### 劉총리署理등 참석
### 國政자문회의 청취

國政諮問회의는 19일 상오 서울三淸洞회의실에서 제9차회의를 열고 劉彰順국무총리서리로부터 신임인사겸 國政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崔圭夏의장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孫在植통일원장관、許和平청와대정무1、金泰鎬政務2수석비서관、趙英吉국무총리비서실장、孫守益行調실장등이 참석했다。

## 建設중인 佛原電 로키트砲擊
### 자칭「平和主義者」
### 增殖爐콘크리트壁에5發

【리용19日聯合=特】리용부근에 건설중인 핵발전소에18일밤 5발의 로키트가 발사됐다고 경찰당국이 19일 발표했다。

이 로키트탄은 론강 맞은편 제방에서 발사되었는데 고속증식로 설치장소를 둘러싸고있는 80cm의 콘크리트벽을 강타했다。

경찰은 로키트탄이 프랑스군으로부터 훔친것이라고 말하고 부상자는 없으며 피해는 적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사건이 발생한후 익명의 남자가 전화를 걸어 이것은 「평화주의자와 생태학위원회」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크레이·말빌르핵증식로는 연료로 사용될수있는 프로토늄 부산물을 생산하기때문에 高速증식로로 알려지고있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핵과 反核단체사이의 치열한대결장소가 되어왔던곳이기도하다。

77년에는 한 독일의反核시위자가 바로 이발전소에서시위도중 경찰과 충돌, 사망하기도했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프랑스는 원유수입에들어가는 연 2백40억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기위해 대대한 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다。

지난6월 집권한 미테랑정권은 원래공약대로 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을 폐기하는대신 계획의 일부만을 축소조정, 反核주의론자들의 거센반발에 부닥쳐있다。

### 오늘 公館長회의

금년도 제1차 在外公館長회의가 유럽및 美洲지역공관장36명이 참석한 가운데 盧信永외무장관주재로 20일부터 23일까지 중앙청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駐在國사정등 국제정세와 정부의 외교시책、경제협력、통상증진방안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美「올해의國際업적賞」재단
### 本社 張康在회장 선정受賞
### 文化부문, 個人으론 唯一

◇張康在회장

【워싱턴19日=曺淳煥특파원】미국의 비영리문화단체인 「올해의 국제업적賞」재단(International achievement of the awards)은 19일 올해의 국제업적 문화부문에 한국일보張康在회장을 선정했다。

이재단은 張회장이 지난80년 미스·유니버스대회를 서울에 유치,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간의 이해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시의 세라톤·워싱턴호텔에서 거행된 시상식에는 劉泰熙한국일보지사장이 張회장을 대신해 참석, 재단회장 아레발로여사로부터 상패를 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수상자를 선정한 「올해의 국제업적상」재단은 이밖에도 도시개발부문에 토고공화국정부、환경보호부문에 뉴질랜드정부、공공행정부문에 요르단및 멕시코정부、빈민정착구제사업부문에 카타르정부、외교부문에 캐나다·이집트·알제리정부를 각각선정, 상을 수여했다。

한편 소련정부도 본사 張康在회장과 더불어 문화부문에서 공동수상자로 선정, 수상했다。張회장은 개인으로는 유일한 수상자다。수상자로 선정된 각국정부는 이날 현지주재대사관의 외교관들이 수상식에 참석, 상을받았다。

### 不況반영 2億짜리工事 152對1경쟁

◇경기浮揚을 위한 정부 工事의 조기 發注가 엄동설한의 계절에 아랑곳없이 연초부터 서서히 본격화되고있다。19일 조달청에서있은 冠岳~始興간 2억4천만원짜리 삼막鐵道驛공사入札에는 1백52개 중소건설회사가 몰려들어 마치 장터같은 분위기。정부는 올예산에 책정된 정부공사의 60%이상을 1·4분기중에 조기발주할 계획인데 조달청당국자는 '2월중순께엔 조기工事發注가 집중될 예정이라 夜間에도 공사入札을 시행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 "韓日實務회담 한두차례 더
### 스즈끼會見 經協문제 성숙시켜"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스즈끼일본수상은 19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제1차 韓日실무회담을 계기로 한두차례의 실무회담을 더 가진뒤 韓日經協문제를 성숙시켜 外相회담과 韓日頂上회담을 적극 추진하고싶다」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제1차 韓日高位실무자 회담을 계기로 본궤도에 오른 느낌이다』고 평가하고 『일본정부는 한국이 제시한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자료와 설명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문제를 성숙시켜 外相회담과 頂上회담을 적극추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즈끼수상은 『한국은 일본의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역사적으로 끊을래야 끊을수없는 형제같은 관계의 나라이며 韓日우호협력이 韓日양국뿐만아니라 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즈끼수상은 韓日우호협력을위해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와함께 人的교류를 대폭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스즈끼수상은 30억달러가 넘는 한국의 對日무역 적자문제에 대해 무역적자의 해소는 양국간의 문제만으로는 해결할수 없으며 韓日양국의 공동기술개발과 기술 이전에의해 무역을 더욱확대해나가는것이 對日무역 적자를해소하는 길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 社會漫評

오래간만에 형노릇한번…

### 地平線

우리나라 상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상점을 물려줄 생각을 안하고있다한다。商議가 전국10대도시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한 결과 그들은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않으며, 목돈마련에는 은행저축보다 계를 많이 이용하고, 성공의 비결로는 근면 성실이 운이나 배경보다 중요하다고 믿고있음이 밝혀졌다。▼지금은 옛시장이나 상가가 퍼져있지만 옛날엔 장사하면 육의전(六矣廛)이 대단했다。綿紬廛、苧布廛、紙廛、魚物廛을 六矣廛이라고 했다。서울의 전통적 商街는 光化門에서 종로3街에 이르는 지역이었다。여기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은 변두리의 市廛에서 거래되었다。종로4가에서 동대문까지의 배오개、七牌로 불린 남대문일대등에서 서상、雜貨、鐵物、소금등을 팔았다。▼그러다가 商社、公司、會社등 새 이름이 붙은 것은 1880년대부터였다。평안도 사람들이 大同商會를 하면서 商社명칭을 먼저 썼다。水標橋 근처인 長通坊엔 中村人들이 長通會社를 설립했고、廣通局·廣春局·豆餠局·廣印局도 나왔다。또 이때 회사들은 개인보다는 동업조합인 업체에 불과했고 撮影局·관청이름 같으나 사실은 개인이 만든것이다。무슨 이 많았고 관설회사의 성격을 띤것도 있었다。市廛人의 특권은 禁亂廛權으로 독점적이었으나 군소상인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18세기말에 상업자유화를 가져왔던것이다。▼상인들이 숭배하는 인물로는 범여(范蠡)가 있다。臥薪嘗膽으로 유명한 越王句踐을 도와 吳나라를 넘어뜨려 大將軍이 되었으나 大名之下 難以久居라고 홀연히 그자리를 사직했다。큰나무밑에선 작은나무가 못자란다는 뜻이다。가족과 함께 이민가서 농사를지으면서 장사로 千金의富를얻고、齊나라 재상자리에 오르기를 간청받았으나 거절했다。그재산을 미련없이 마을사람에 나눠준후、다시 陶라는마을로 옮겨가 陶朱公이란이름으로 장사에전념、巨富가된 사람이다。말하자면 권세보다 富를 중시한상인이었다。▼우리나라 상인가운데도 중국의 故事를 본떠 범여같이 장사를 최고로 아는이도 있을 것이다。근면절약으로 보수적이면서도 착실한 우리 상인들이 왜 자녀들에게만은 상점을 물려주고 싶지않는 심정을 갖게되었는지、세금이 무겁다는 소리와 함께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것같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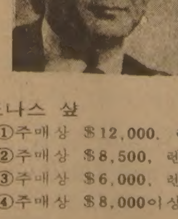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목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5,500 아스킹: $18,950 네트: 년 $120,000
렌트: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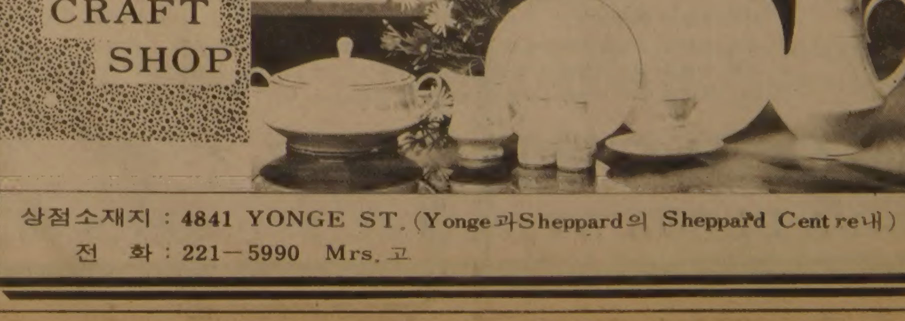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토타리오 인컴 월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샵
● 드라이크리닝

주소: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춘계 대방매
(NORITAKE DINNER SET)

* 토론토 내에서 EATON'S와 SIMPSON'S 그리고 저희 AMIK 세곳에서만 특별히 작년 가격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판매하고 있읍니다.
* 저희 가게에서는 작년세일가격+5% OFF 합계 작년가격의 35% OFF이니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가게에서 구매 하세요.
* 기타 많은 NORITAKE제품 세일 중입니다. 일차 왕림 하시어 무엇을 싸게파는지 구경오세요.

AMIK
CRAFT
SHOP




상점소재지: 4841 YONGE ST. (Yonge과Sheppard의 Sheppard Centre내)
전화: 221-5990 Mrs. 고

# 佛·蘇, 시베리아가스供給 협상

## 美반대默殺 "世紀的거래" 회담再開

## 25년간 對佛공급合意

### 美, 코콤通해 對蘇관계 縮小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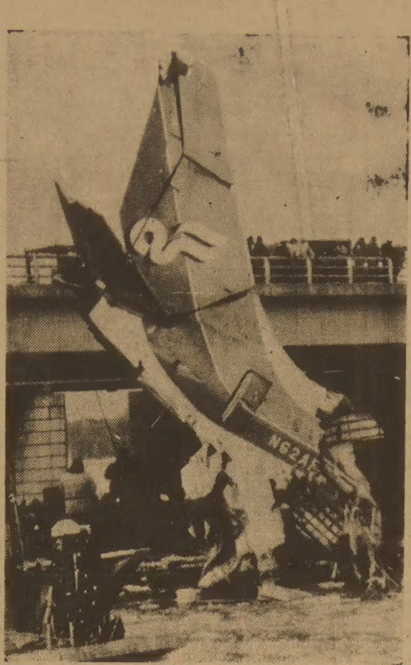
【파리18日AP=聯】프랑스와 소련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세기적거래」인 시베리아산 천연가스공급문제를 놓고 18일 프랑스에서 회담을 재개, 아마도 금주말까지 이회담을 계속할것이라고 가즈·드·프랑스社의 소식통들이 밝혔다.

양측은 소련이 오는84년부터 앞으로 25년간 시베리아産 가스를 매년 80억㎥씩 프랑스정부에 공급한다는데 대체적인 합의를 이미 본바 있다.

이 가스의 對프랑스공급가격은 아직 절충중인데 대서독공급가격은 1백만BTU당 약5달러선인것으로 알려졌다.

길이 5천㎞의 이시베리아횡단가스관이 건설되면 매년 서독 1백5억㎥ 이탈리아 85억㎥ 프랑스80억㎥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가 합쳐 1백20억㎥를 각각 소련으로부터 공급받게된다.

한편 美國은 19일 파리에서 열릴 대공산권수출통제조정위원회(COCOM)회의를 통해 이같은 대소경제관계를 축소하도록 서구에 압력을 넣을것으로 예상된다.



◇江밖으로 나오는 추락美旅客機 꼬리 美구조대원들이 18일 얼음으로덮인 포토맥강에서 에어플로리다 항공사소속 추락기의 꼬리부분을 끌어올리고있다. 구조대는 추락기의 꼬리부분에 중요한 비행기록이 보존돼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워싱턴18日UPI特約=聯】

## 레이건執權1년간 인권보호背信했다

### 美전국都市聯비판

【워싱턴18日UPI=聯】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집권1년은 『기본적 인권보호를 배신』한 한해였다고 미국전국도시연맹의 1982년도 연례 『미흑인실태』 보고서가 18일 주장했다.

존·제이콥씨는 전임 버논·조단씨로 부터 美전국도시연맹의 지도권을 인수받은후 처음으로 이날 워싱턴에서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지난81년은 미국흑인들에게 경제침체와 빈자를 보호를 배신한해로 기억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81년을 회고하면서 미행정부의 여러가지 사회정책등으로 부자는 더욱살찌고 美국방성은 백지수표를 위임받은반면 빈자는 직업·교육기회·식량보조및 의료혜택까지 없게됐다고 주장했다.

## 佛내각, 새國有化계획 成案

### 모로와首相 "憲法委결정事項 감안"

【파리18日AP=聯】프랑스내각은 5대기업과 38개민간보험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법안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일 새로운 국유화계획을 성안할 것이라고 모로와 수상이 18일 발표했다.

모로와수상은 새 국유화법안이 헌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감안한내용이 될것이라고 밝혔는데 헌법위원회는 국유화계획의 원칙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보상조건이 받아들일수 없을만큼 낮은것이라고 지적했었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되자 국유화대상업체들의 주식거래가 18일부터 3일간정지됐는데 증권당국은 주식거래정지기간이 더 연장될지도 모른다고 시사했다.

# 美, 對西歐不滿 고조

## 35만駐歐美軍 철수可能"경고

### 번즈駐西獨 美大使

【본18日UPI=聯】아더·번즈 주서독미대사는18일서독을비롯한 유럽국에대한미국의불만과 비판이 날로 증가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경우 미의회가 35만 유럽주둔 미군의 철수를 고려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번즈대사는 이날 서독사민당기관지 포르배르츠지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헬무트·슈미트서독수상의 폴란드및 대동구무역관계 입장으로 미루어 볼때 그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러나 슈미트수상의 그와같은 입장이 사민당전체의 입장은 아닌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번즈대사는 유럽과 서독의 대소및 대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입장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비판이 일반국민들 론의회에서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希정부, 蘇선박에 造船所 사용허용

【아테네18日UPI=聯】그리스 社會黨정부는 소련상선및 해군보조선들에게 시로스島의 네오리온 조선소시설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정부대변인이 18일 말했다.

이 대변인은 소련선박들의 시로스 조선소사용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신문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된다면 비무장보조선들이 이조선소를 사용하게 될것』이라고 답변했다.

## 日, 貨物船피해상황 조사

### 公海서被擊 곧 對應策 결정키로

【東京·마닐라19日UPI=聯】일본정부는 19일 오끼나와로 귀항중인 일본화물선 헤그號에 해상보안청소속선박을 파견, 피해상황조사에 착수했다.

오끼 피격당시의 정황에관한 정식조사가 끝나면 필리핀에 대한 대응책을 결정할 것으로 밝혀졌다.

고사가·도쿠사부로 운수상은 이날 해상보안청의 구나라미호가 오끼나와남쪽 6백30해리에서 헤그호와 만났다고 말하고 그러나 거센파도때문에 보안청관리들이 이배에 승선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무성은 헤그호가필리핀공군기의 공격을 받을당시 공해상에 있었다는 해상보안청의 견해를 발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당시의상황을 점검하고 진상을 규명한뒤에 필리핀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것인지를 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 外信알페이지

◆日外務次官, 蘇향발=야나기야·겐스께(柳谷謙介)일본외무차관은 약2년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이래 처음으로 日蘇양국간의 실무자급 회담을 갖기위해 18일 東京을 출발, 모스크바로 떠났다.

이日蘇회담에서는 소련이 2차대전후 점령한 홋까이도(北海道) 동쪽의 북방 4개도서에 대한 日本의 영토권주장과 폴란드문제를 포함한 주요국제문제와 쌍무문제들이 논의된다. 【東京=AP】

# 메아리

## 以冷治冷

대한이 소한집에 갔다가 얼어죽었다느니 소한을 이기는 대한이 없다는등 예로부터 기승을 부리는 추위가 대한은 소한에 비겨 시답지 않다고 하여 괄시를 받으며 내려온다.

그러나 오늘 20일의 대한은 사정이 좀 달라서 이번엔 소한이 대한집에 얼씬했다가는 얼어죽기 바쁘게 생겼으며 정말 오랜만에 대한 추위가 소한추위를 눌러 면목을 찾게 될듯하다.

대한을 하루 앞둔 19일새벽 기온은 중부지방에서 영하 14도로 내려 예년보다 추운 날씨인데다가 호남·충청 일부 지방에는 눈까지 내려서 교통이 두절되는 등 추위와 강설로 전국이 뒤덮이다시피 되었다.

하기야 우리의 대한추위는 미국의 「시베리아특급」으로 불리는 20세기 최악의 한파에 비기면 아직 약과이다. 그곳 북부지방에서는 2주째 영하 40도의 추위에 시속 2백㎞를 넘는 강풍과 폭설이 한데 겹쳐서 이로인한 사망자만도 19일 현재 3백을 헤아렸다니 더 할말이 없다.

그런데 소한과 대한으로 이어지는 한추위에는 찬음식을 먹으며 어한을하는 풍속이 우리생활속에 전해진다. 온돌방에 뜨겁게 군불을 지피고 거기서 메밀로 뺀 국수를 차디찬 동치미 국물에 말아서 먹는 것은 엄동 참에서는 더운음식을 먹어야하는 상식에는 벗어나나 이냉치냉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냉면은 6·25전까지만해도 추운 평안도나 함경도지방에서 흔히 즐겨 먹었지만 근자에는 전국 어디서나 별미로 나돌고 있다.

또 삼동 추위 속에서 상미했던것에 수정과가 있다. 곶감을 꿀물에 담그고 생강과 계피가루를 우리며 잣을 띄운 수정과도 한추위 때이어야 제맛이 난다. 그런데 대한을 전후한 추위속의 시식은 청어와 대구와 동태이다. 청어는 통영과 해주앞바다에서 잡힌것이 맛이 있으며 대구는 역시 통영대구를 꼽는다. 동태는동해 함경도 앞바다에서 잡힌 것이 일킨하다했으나 오늘날 그맛을 보기는 어렵다.

모처럼 소한을 앞지른 올 대한에는 시식타령보다는 이냉치냉의 지혜로 한 추위를 이길 궁리를 더 해야 할것같다.

# CIA의 秘密·要員名單 폭로

## 「더러운 일」등 갖가지著書 쏟아져

## 70년들어 急進主義者들 支配層 비난

## 下院, 81년「情報확인防止法」으로 맞서

美國 이런일·저런일 ⑩

◇「1인CIA」, 「反스파이」로 불리는 CIA 요원 명단을 폭로한 필립·에이지 (사진·左) 와 루이스·월프。

極右極端主義가 60년대를 풍미했다면 急進자유주의도 70년대에 자리를 굳혔다. 미국의 현대는 어떤의미에서는 이런 保守·自由라는파도가 썰물·밀물이 되어 밀고 밀리는 싸움같이보인다.

작년9월24일 미국하원은 3백54대 56표로 「情報 확인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때를같이해 UPI는 조그마한 기사를 내보냈다.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프레스·클럽의 한방을 차지하고 있는 에 근무하고있는 CIA요원 명단을 공개하는것을 목적으로한 「CIA비밀활동폭로회람」이 출판을 중지한다는기사였다.

편집장 「루이스·월프」는 『「회람」은 법원이 CIA요원의 명단공개가 합법적이라는 결정을 하기까지 명단공개를 보류한다』고 밝히면서 마지막호에 45개국 69명의 명단을 실었다.

뉴욕 타임즈는 월프의 회람과 단골 기고가인 필립·에이지 (「CIA日記」의 著者·前 라틴 아메리카지역 담당 CIA요원) 등을 「보이지 않는 政府 (CIA)」를 「어둠는 등에」로 표현했다.

월프는 64년 라오스에서 宗教활동을 하던중 CIA의 비밀활동에 무의식적으로 협력을하게된것을 계기로 정보사회에 혐오를 느껴 폭로가로 전신했다.

에이지는 68년 라틴 아메리카 지역담당을 사퇴하면서 75년 CIA의 내부를 폭로하는 책을 발간했다. 47년의 CIA 창설이래 여러전직요원이 사퇴하거나 은퇴한후 CIA를 알리는 책을 썼지만 에이지의 폭로는 충격적이었다. CIA는 그를 변절자로 취급했다.

그러나 에이지는 유럽을전전하며 월프를 워싱턴에두고 「더러운 일」이란 책 1·2부를 발행하여 미국 최강 기관의 배일에싸인 요원의 이름, 직책을 계속 폭로했다.

연간 6회 출간해온 회람이 6천명의독자를 가지면서 폭로한 海外 CIA요원 명단은 2천명이나 되었다. CIA는 에이지가 알고있는 비밀작전이 소련에 넘어갈까봐 한때 그가알고있을 작전을중단하기도 했다.

에이지는 『나는 CIA의 변절자가 아니다. 公衆을 위해 감춰진것을 알려줄 뿐이다』라고 말했다.

월프는 『70년대 중반 상원 처치위원회등이 CIA의 권력남용 사건을 공개한후에도 여전히 秘密지하활동이 진행중이다. 나의 폭로는 기자정신에 의한것이다. 비밀 모략활동은 CIA族들에게는 불가분의 속성이다. 이런 활동을 막기위해 이름을 밝히는것이다』라고 주장한다.

「1인 CIA」, 「反스파이」들로 불리는 월프類의 情報社會 혐오가들은 70년대들어서자60년대의極右極端主義, 美國土種주의의벽을깨고 서서히머리를들기시작했다.

71년 월남전의 내막을 쓴 「펜타곤·페이퍼」를 뉴욕·타임즈에 유출폭로한 대니얼·엘스버그 (당시 란드연구소 연구원)의 행동을 시초로 急進主義者들은 極右極端주의자와는 전혀다른 시각에서 지배계층의「陰謀, 作黨」을 비판하기시작했다.

74년들어 2년여의 법정투쟁끝에「CIA와 情報 崇拜族」이란책을 1백68곳이나 삭제한채 내놓은 빅토르·마르체티는『나는 CIA에 자원해들어갔지만 10년근무기간 너무많은비밀, 음모, 전복활동이 공중의 이익과는 동떨어져 행해지고있음을실감, 그직을떠났다』고서문에서밝히고있다.

마르체티의책이 발간된것은 시민의자유를옹호하는「美國시민자유연맹」변호사들의 법정투쟁 결과였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CIA 베테랑 요원이었던 프랭크·스넵, 앙골라담당자였던 존·스톡웰등이 反스파이적 폭로서적을 계속 펴냈다.

巨大한 미국을 지키는데는 역시 反스파이보다는 스파이활동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하원은 「정보확인 방지법」을 제정한것인지 모른다. 【朴涌培기자】

# 東西경제, 冷戰時代로 되돌아갈 것인가

## 파리서 코콤會議…강경한 對共產圈무역규제 措置나올듯

東西 경제관계는 또다시 「냉전시대」를 맞을지도 모른다. 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코콤)는파리본부에서 19, 20양일간 유례없는 극비의 고위관리회의를 열고있다. 코콤의 회원은 나토 가맹국과 일본등 서구선진국. 이들이 상위레벨의 회의를 갖기는 20년만의 일이다.

코콤은 지난50년 만들어진 냉전시대의 부산물이다. 서방측의 경제적이익, 즉 고도의 첨단기술을 보호키위해만들어진것. 그럼에도 최근 20년간 데탕트의 기류속에 코콤은 비공산권 수출규제의폭을 해마다 완화해왔다.

이번회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열렸다. 레이건 대통령은 제임즈·버클리국무차관을 수석대표로하는 차관급 고위관리들을 파견했다.

미국은 폴란드사태와 대소 강경책을 배경으로 3개의규제강화안을 내놓고 있다. 그것은 ①기술·노하우도 규제대상으로할것 (특히 전자 통신 컴퓨터) ②전략품목기준을 고쳐기술품목의 규제폭을 강화할것③코콤의 수입승인 통관증명제도를 개정, 제3국에 대한 수출품이 공산권으로 새나가지않도록 할것 등이다.

한마디로 공산권에 대한 무역절차를 더욱 까다롭게하여 조그마한 기술일지라도넘겨주지말자는 제안이다. 소련을 골탕먹이자는 속셈도배후에 깔려있다.

현재 코콤의 수출제한품목은 1백50개정도다. 당초는 4백개에 달했다가 동서데탕트에따라 점차 줄어들었다.

지난주 대소경제제재조치를 위한 나토긴급외상회의가 미국제안에 매우 가깝게 접근했던점으로 미뤄, 파리회의는 매우 강경한 규제조치를 내놓을것으로 추측된다.

또다시 동서의 무역은 껄끄러운 상태가 될것이며 이로인해 경제관계는 50년대의 냉전시대로되돌아갈지도 모른다.

한편흥미로운것은 미국이 서방동맹국의 對蘇경제교류확대무드를 코콤을 이용해 제동을 걸려하고 있는것이다. 그 첫 케이스가 「세기적 거래」라고하는 프랑스의 시베리아산 천연가스 구입계약이다. 미국의 압력은 도처에서 나타난다. 【李鍾九기자】

## 史의名言

프랑스詩人。관리의 아들로 파리태생。16세부터 詩作을시작, 어렵지만 명석한 美를갖춘 象徵詩를썼음。후의 詩人들에 많은영향을줌。「牧神의 午後」「주사위는던져졌다」등。

詩는 思想이나 感激으로 쓰여지는것이 아니다。오직 말에의해 만들어진다。

× × ×

### 詩는 思想·感激아닌 말로 쓰인다

말라르메 〈1842~1898〉

폴·발레리와함께 프랑스 象徵詩派의 중심인물인 말라르메 (Mallarmé, Stephane)는여러곳의 中學校교사를 하면서 조용한 일생을 보냈는데 일찍부터 詩人으로서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에 둘러싸여 큰 존경을 받았다.

그는 寶石을 새긴것처럼 아름다운 그러나 難解한 詩를 남겼다.

그의 작품 「牧神의 午後」는 드뷔시의 作曲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晩年의 말라르메의 살롱엔 화요일마다 많은 知己와 후배들이 모여 그의 人格과 學識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멤버중엔 지드, 발레리, 클로델이 있었다.

引用은 말라르메가 그의 친구인 드가에게 한말이다. 드가는 1차大戰중에 죽은 프랑스의 畵家로 발레의 舞姬들을 즐겨그린 사람으로 잘 알려졌다.

그는 觀客席으로부터 화려한 舞姬의 모습을 그린것이 아니라 人間으로서의 舞姬를 舞臺뒤에서 그렸다고 전해진다. 하루는 드가가 말라르메를 찾아와 「나는 말을 가졌는데도 思想이나 感激이없어 좋은詩를 쓸수없다」고 한데대해 그렇게 응수했다는것이다.

이는 물론 詩를만드는데 사상이나 감격이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뛰어난 思想이나 感激이있어도 言語表現의 힘이없으면 文學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말·말」이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2幕2場에서 미치광이 시늉을 하고있는 햄릿에대해 오필리어의 아버지 포로니어스가 「무엇을 읽고 있느냐」고 묻자 햄릿이 「Words, Words, Words」라고 답한다.

무엇을 읽고있느냐고 묻는데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할수는 없었다. 단지 말이 나열된것을 읽고있을 뿐이라고 비꼬아서 말한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없으면 文學은 存在할수없다.

文學이란 말의 藝術인것이다.

◇핀란드의 새大統領 지난17, 18양일간 실시된 핀란드대통령선거에서 共產黨의지지로 새대통령에 선출된 社民黨의 마우노·코이비스토핀란드수상. (웃고있는 사람) 【헬싱키19日UPI特約=聯】

## 핀란드 大統領 코이비스토

### 木手로출발…首相지내기도

18일밤 압도적표차로 핀란드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마우노·코이비스토(58)수상(사민당)은 대통령권한대행인 핀란드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으며 수상과 핀란드중앙은행 총재직을 겸하고있다.

1923년11월25일 투르쿠에서 태어난 그는 투르쿠항의 목수로 시작, 철학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68년~70년 수상으로서 첫임기를 보낸 그는 79년 두번째 수상직을 시작, 지난해10월 케코넨 대통령이 동맥경화증으로 사임하자 임시 대통령직을 맡게됐다.

코이비스토는 47년 사민당원이 되었으나 그의 사회주의공약이 어느정도 강한것인지는 한번도 말한적이 없었다.

### 얼굴

그가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수있었던것은 그가 정당정치에 무관심했었기 때문인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하고있다.

핀란드 인들은 케코넨시대가 계속될수록 정당정치에 싫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오는 26일 핀란드 최초의 사회주의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코이비스토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커다란 변화도 기대하지말라며 『핀란드가 케코넨시대의 노선을 그대로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헬싱키=AP】

## 海外토픽

### 肥料없이 벼栽培

★日, 新品種개발成功전망

비료없이 자랄수있는 신종벼개발에 대한 일본의 유전공학노력이 성공을 거둘것으로 보인다고 미시마시에서 19일보도됐다.

東京서남 약1백㎞의 미시마시에 있는 「일본국립유전학연구소」1차연구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는데 일본의 연구원들은 작년말 타이벼2종과 인도벼1종이 뿌리에있는 박테리아를통해 대기속에서 질소를 추출, 농축할수있는 능력을 가진것으로 확인했다.

이연구소팀은 모든 상태가 순조로울경우 83년또는 84년까지는 비료가필요없는 벼품종을 개발할수있을것으로 믿고있다.

유전및 농업전문가들은 이연구가 성공되면 식량부족난을 겪고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쌀재배능력이 향상될것이라고 이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있다. 【미시마(日)=AP】

### 波國內인권 審理

★버트런드·러셀名譽法廷

「버트런드·러셀법정」이 폴란드사태를 심판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곧 개정될것이라고 이 법정의 의장인 블라디미르·데디에르씨가 17일 밝혔다.

유고슬라비아의 역사학자로 지난 64년 유고작가인 밀로반·드질라스의 표현자유권리를 옹호했다가 유고공산당中央委에서 추방됐던 데디에르씨는 이날 코리에레·델라·세라紙와의 회견에서 러셀법정이 1차로『폴란드내의 인권위반』을 심리하며 다음으로 現폴란드사태에 책임이있는자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데디에르씨는 이법정이 7명으로 구성될것이며 이들은 『모든 필요한 분야에서 능력을 갖춘 유럽중립국 또는 비동맹국 인사들 가운데서 선출될것』이라고 밝혔다. 【밀라노=AP】

## 文化短信

### 세계交響樂團 파견 청소년團員을 모집

한국 청소년 음악연맹은오는 7월중 헝가리에서결성될 세계 청소년교향악단에 파견할 단원 약간명을모집한다.

대상은 만16세이상 24세까지 현악기 연주자및 합창단(소프라노) 단원. 전형일시는 22일 하오2시 서울예원에서.

세계 청소년 교향악단은국제 청소년연맹(FIJM)이 매년 총회나 세계대회에 즈음하여 전세계 청소년들로구성하는 것으로 올해는 졸탄·코다이의 탄생 1백주년을맞아 그의 탄생지인 헝가리 키스케메트에서 결성된다. (㉘2590㉘1017)

### 봉산탈춤강습회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실기강습회가 20일~31일 하오1시~3시 서울강남구 삼성동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김선봉 양소운 최경명씨등. [illegible]6356

### 현대무용講習會

제13차 현대무용강습회가 29·30일하오1시~4시 梨大체육대학에서 개최된다.

문예진흥원 예술인 해외연수계획으로 1년간 미국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金慶玉씨(29)가 전문무용인을 대상으로 현대무용실기를 지도한다.

참가대상은 무용전공대학생및 전문지도자. [illegible]92 45

### 동아演劇賞 결정

제18회 동아연극상의 남자연기상은 金吉浩 朴仁煥, 여자연기상은 白星姬 金福姬가 수상했다. 大賞은 해당작이 없고 극단 가교의「못대로 하세요」가 선정되었으며 무대미술상은 宋寬祐씨, 특별상은 「농토」작가 尹朝炳씨와 가교연출가 마거리트·모어여사가 각각 받았다. 시상식은 15일 오후 예총화랑에서 가졌다.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 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5일에 $13 로

원하시는것을찾으실수있읍니다.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등 모든것을 사고 파실때는 우선 한국안내 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3일에 $13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광고문안을 아래 네모칸에 알맞게 적으셔서 CHECK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우편이 접수된 다음날부터 게재됩니다.

*1칸 : 5일 – $13 두칸 : 5일 – $26 세칸 : 5일 – $39

1칸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AD. DEPT.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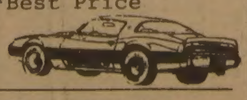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이 구두를 돌려드려야겠어요"

"이건 누구 점심인데요" "오, 저런…오늘아침에 버스가 그렇게 붐비더니만"

"누가 실수로 아주머니구두를 집어가고 점심을놓고 갔군요!" "이런, 어쩌나"

"히야, 신나는 점심시간이구나…너무 배가고파 구두가죽이라도 먹겠는걸"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 「포니」·「제미니」新型 나온다

## 現代·새한 2월末·3월中旬께 市販

### 포니 前面 그라나다型 5도어로
### 제미니 레코드型에 이름은 「맵시」로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現代자동차는 현재의 포니승용차의 모델을 변경①전면의 모양을 그라나다형으로 바꾸고②뒷면의 트렁크를 없애고 문을부착한 5도어형으로 개조하고 ③내부공간을 확장한 신형포니를 2월말께부터 市販할 예정이다.

또 새한자동차는 현재의 제미니를개량 ①차이름을 맵시(Maepsy)로 바꾸고 ②전면의 모양을 레코드형으로 변형하며③기름소모량이 많은 제미니의 엔진을 바꾸어 연비(연료소모량)를 경쟁차종인 포니수준으로 낮추는 새소형차를 3월중순께부터 시판할 예정이다.

새한측은 새로개발될 소형차의 연료비를 낮추기위해 자동차산업통합에따라 생산이 중단된 起亞産業의 브리사용 1천3백cc 가솔린엔진의 테스트까지 끝마쳤다. 그러나 새한의 합작파트너인 GM측에서 연료가많이드는 자사제품엔진사용을 고집하고있어 오는2월초 내한하는 GM본사의 매코맥사장과 이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

◇주요家電製品 특별消費稅率 조정내용

(단위 : %)

| 品目 | 規格 | 종전特消稅率 | 탄력세율(A) | 개정特消稅率(B) | 조정률(B—A) |
|---|---|---|---|---|---|
| 칼라텔리비전 | 18인치초과 | 40 | 28 | 40 | 12 |
| | 18인치이하 | 40 | 28 | 28 | — |
| 흑백텔리비전 | | 30 | 21 | 10 | △11 |
| 냉장고 | 250ℓ초과 | 40 | 28 | 40 | 12 |
| | 250ℓ이하 | 40 | 28 | 28 | — |
| 소형녹음기 | 스테레오 | 30 | — | 25 | △5 |
| | 모노 | 30 | — | 10 | △20 |
| 전자레인지 | | 40 | 28 | 2·8 (83년까지) | △25·2 |
| VTR및 同Tape | | 40 | — | 4·0 (83년까지) | △36 |
| 전기남비(프라이팬) 전기난로 전기곤로 토스터 | | 40 | 28 | — | △28 |

# 公務員 오너드라이브 겨냥

## 年産 30萬臺, 대단위 공장건설 推進

자동차업계가 재편성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통합작업이 일단 마무리되어 차종별 전문화체제가 갖추어지자 現代·새한·한국자동차(起亞·東亞의 통합회사)등 자동차3社는 전문화체제에 맞추어 증설계획을 서두르는한편 이미 새모델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現代와 새한등 2개승용차메이커는 한편으로는 연산30만대의 대단위공장건설계획을 추진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통관해제와 공무원의 오너드라이브제 실시에 따라 승용차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것으로보고 이미 소형차의 새모델 개발(페이스·리프트)에 착수, 2월말에서 3월중순사이에 각각 새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現代와 새한은 당초 4월중순께 내놓을 예정이던 새모델의 판매를 2개월가량 앞당겨 내놓기로 했는데 이는 오는4월1일부터 공무원의 오너드라이브제가 실시된데 대비, 오너드라이버에 대한 판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무원 오너드라이브제는 4월부터 20%, 하반기부터 20%씩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면시행한다. 현대와 새한은 새모델을 개발해도 판매가격은 인상치않기로 했다.

그런데 통관해제와 공무원의 오너드라이브제시행에 따라 승용차수요는 최소20%이상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금년도 승용차수요는 최고50%까지 늘어 잘하면 자동차업계는 3년만에 적자에서 헤어날수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한편 起亞産業은 현재의 각종 승용차부품조립이 끝나는대로 승용차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차종별 전문화원칙에 따라 봉고시리즈개발에 착수, 1톤급 트럭, 코치, 앰뷸런스, 밴, 더블캐빈등의 차종을 내놓을 예정이다. 起亞산업은 고급승용차 푸조의 생산은 이미 중단했는데 최근 고급승용차를 찾는 분의 주문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東亞자동차도 차종별전문화원칙에 따라 미서트럭등특장차생산의 전문화체제를 갖추는 한편 기아계의 아시아자동차와 일반 버스및 고속버스 생산에관한 조정이 끝나는대로 전문화체제를 갖추기로했다.

자동차업계는 새모델의 개발과 아울러 80년대중반을겨냥한 대단위공장건설계획을 서두르고 있는데 現代자동차는 오는 2월중 합작파트너인 日本미쓰비시자동차의 지분불입이 끝나는대로 3월부터 공장건설에 착수, 84년말에는 완공할 예정이다.

## 연예話題

### 마닐라映畵祭 개막 경쟁·展示등4部門

제1회마닐라국제영화제가 18일하오 필리핀의 퍼스트레이디 이멜다女史를 비롯, 각국영화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야제를 시작으로 화려한막을 올렸다. 오는 30일까지열리는 同映畵祭는 올해 창설된 것으로 경쟁부문·전시부문·마키팅부문·심포지엄 부문등으로 나누어 열린다.

주간女性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 나의 이력서

〈飜字 元一漢〉

元一漢 ㊱

## 선교사와 神社參拜문제

## 中日戰爭후 끊임없는 壓迫

## 信者로서 限界못정해 곤혹

내가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돌아왔을때 延禧전문학교장인 아버지의 고충과 시련은 아주 극심했다. 총독부 학무국은 延禧의 재래 校旗, 校歌, 응원가는 물론 영어로 쓴 각종 게시사항을 철거하고 황국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선전문구를 써 붙이라는 명령을 해왔다.

中日전쟁이후 조그마한 단체까지 불법으로 손을 대기 시작, 延禧캠퍼스에서도 여러교수들이 검속당했다. 玄濟明교수 작곡집 첫머리에 수록됐던「조선의노래」가 금지곡이 되었던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내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해엔가는 서대문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이 대학도서관을 수색, 불온문서란 이름으로 귀중도서 수백권을 압수해 갔다고 들었다. 압수당한 도서가운데는 한일합병에관한 영문사료도 포함돼 있었다.

선교사 입장에서 볼때 끊임없는 압박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당면 문제가 신사참배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할지 그 한계가 명확치 않았기때문에 더 곤혹스러웠던 것이다.

크리스천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가 이세상에 태어나심으로해서 기독교신앙은 다른세계가 아닌 바로 이세상에서의 종교인 것이다. (Christianity is not other worldly religion)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언제든지 이 세상문제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해야한다.

정치와종교는 구별해야 한다고하나 기독교인으로서는 한계선을 정하기 어렵고 사람마다 그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나 일본측은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요 애국행동이므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한다.

이때 아버지는 선교사로서는 신사참배는 말할것 없고 참례라도 당연히 반대해야지만 延禧전문학교 교장으로서는 참례정도의 총독부방침을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워 학교폐쇄위기를 넘겼다.

학생들이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애국심의 표시라면 가서 서있을수 있다는것이 학교를 폐쇄당하지 않으려는 타협의 선이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기회있을 때마다 이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했다. 기독교인도 成均館에 들른다든가 사찰을 구경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추방되면 그만이지만 이땅에 남아있을 한국사람을 위해서는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주장이었다. 학교를 일본사람 손에 넘겨주고 떠날경우 선교사로서 양심에 어긋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延禧전문학교를 일본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물겨운 타협도 불사했던 아버지 元漢慶박사.

### 아버지는 교장 입장서 參禮타협…廢校위기모면

나는 근본문제에 부딪쳤던 것이다. 이처럼 미션스쿨에 신사참배가 강요되자 미국북장로교 실행위원회는 1937년 10월 平壤崇實전문학교를 비롯 북장로교계 남녀 중학교 10개교, 남장로교계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8개교를 총독부에 학교폐원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당시 延禧전문학교나 平壤崇實전문학교가 다같이 신사참배 문제로 탄압을 받았으나 延禧이 崇實처럼 폐쇄되지않은데는 또한가지 이유가 있었다. 崇實은 미국 남북장로교가 단독으로 세운데비해 延禧은 미국 북장로교 감리교 캐나다장로교 선교부가 연합으로 설립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도 교장으로서 아버지가 延禧의 계속적인 유지를위해 일제와 얼마나 눈물겨운 타협을 했던가는 짐작하기 어렵지않다. 미국국무성과 한국정부가 선교사를 비롯해 한국에 있는 미국인의 귀국을 명령했을때 아버지는 한마디로 이를 거절했다.

아버지는『한국인이 나의 퇴거를 명령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한 한국을 떠날수 없다』는 굳은결의를 보였다.

총독부 학무국은 1940년들어 신사참배를 더욱 극성스럽게 강요했다. 1940년은 한국침략 30주년이자 일본건국 2천6백년이 되는 해였다.

이해부터 학교를 쇄신한다는 구실로 갖가지 탄압이 자행되었으니 아버지의 고충이 얼마나 컸는지는 직접 당하지 않고서는 설명할수 없을 것이다.

# "히포크라테스肖像畵는 가짜"

## 日醫學界 파문 스토아學派 한哲學者로 밝혀져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에 널리 보급돼 있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초상화가 실은 스토아학파에속했던 한철학자의 얼굴로 최근밝혀져 일본의학계를 놀라게하고있다.

東京大의 오가따(緖方)교수에의하면 이초상화는 1893년 독일에 유학한 한일본의학도가 프랑스화가가 그린 스토아학파철학자의 초상화를 히포크라테스인줄 착각하고 일본으로가져왔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사용되고있는것이라고 밝혔다.

오가따교수는 1940년 로마의 한강변에서「생명은 짧고 기술은 길다」라는 명구가 새겨진 흉상이 발견됐는데 이것이야말로 히포크라테스의 실제모습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설명.

잘못 전해진 히포크라테스의 초상화는 코가 오똑하고 대머리인데 반해 진짜모습은 앞머리가 있고 훨씬 젊어보인다. 한국에 보급된 히포크라테스의 초상화도 대부분 일본의것이 그대로 전해진것으로 밝혀졌다.

◇히포크라테스의 실제모습으로 알려진 흉상(上)과 일본에 잘못전해진 초상화.

## 風速計

# 英宣教師 게일의 韓譯「지킬博士…」발견

## 능숙한 우리말로…책제목은「一身兩人記」

英國 선교사 J·S·게일(1863~1937)이 58년전에 영국 文豪 스티븐슨의 걸작「지킬박사와하이드씨」를 능숙한 우리말로 번역해서 출판했음이 밝혀졌다.

게일은 1888년부터 1928년까지 40여년간 우리나라에 머물며 한국최초의「韓英辭典」을 편찬하고,「심청전」「흥부전」「구운몽」등 한국의 古典文學을 英譯해서 외국에 소개하는데 큰힘을기울였던 선교사。그는 한국문화와 풍속도 연구해서 우리고유의 풍속과문화를 해외에 알리는「한국 풍속지」와「漢陽志」등을 쓰기도했었다.

그가 우리말로 외국소설을 번역한 사실은 이제까지 전해오지 않았으며,「스티븐슨의「지킬박사와 하이드씨」우리말 번역작품은 그의 全作品 年譜에도 나타나 있지않은책. 檀國大 문화연극 박물관 연구원 金鍾旭씨가 찾아낸 이 책은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의 모습을 묘사한그림과 함께「일신량인긔」(一身兩人記)라는 재미있는 우리말 제목을 붙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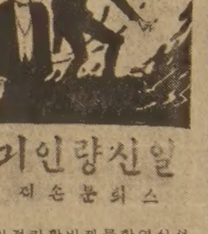
책의 뒷페이지에는「譯述者」가「英國人 奇一牧師」로 돼 있고, 英文으로「J·S·게일」이 표기돼있다。발행처는 京城鍾路朝鮮耶穌敎書會。

게일은 조선야소교서회의 창설 핵심멤버였다.

그는 책의 앞장에서「역자 기(譯者記)」를 통해「이책은 특별히 걸작이라, 사람의 선악을 묘사하여 보는 자는 심령상에 무한한 감상이 자연히 일어남을 금치 못하게 한지라, 그 의미가 오묘하고 문법이 령활(靈活)하니 어찌 심상 무의미한 소설에 비할바리오。그 심오하고도 활연(活然)한 맛을…」이라고써, 그의 번역의 동기를 적고「서기1924년12월11일」이라고 번역과출간의 年代를 기록했다.

번역은 대체로 일관돼 있고, 아래「ㆍ」字를 사용하고 있다. 모두 10齣으로 나누어「수상한 진」「하이드를 찾음」등 소제목을 달아 지킬박사가 오랜 연구끝에 약품을 발명해 약을 마심으로 善과 惡 二重의 성격을 마음대로 구사하다가 차츰 惡의 化身인 하이드씨의 지배가 강해져 善의 化身인 지킬박사는 희미해지고 결국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본래의 성격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게일은 하이드씨가 강해져 본래 인물인 지킬박사를 지배하는 대목을『정월 어느날 나는 리젠트공원에 들어갔니라。봄기운이 생동하여 새들이 노래하는지라。얼마동안 배회하다가 의자에 걸터앉으니 나의 속에서 신(神)은 조을고 정욕은 깨어나며라』라고 세련된 우리말 표현을 하고있다.「일신량인긔」의문체는「…노라」「…하니라」「…하는고」는 식의 쓰고있다. 【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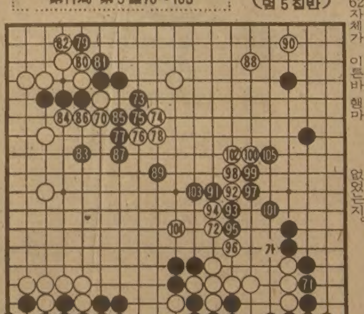



◇J·S·게일목사가 스티븐슨의 걸작소설「지킬박사와 하이드씨」를 번역한「일신량인긔」의 表紙.

#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1局 第5譜 70~105 (각 5시간 덤 5집반)

白 (5段) 張秀英 〈3勝〉
黑 (6段) 徐能旭 〈3敗〉



## 白軍, 去益甚難局

白이 고전에 빠진 要因은 초반에 좌하귀의 작전이 성급한때문이고 다음 近因으로는 좌상귀 정석의 실패를 들수있다. 우하귀를 차지한것은 그런대로 좌하귀 패의댓가로 봐줄수있으나 黑이 71로 이어가자 白은 바깥이 근거를잃고 공중에 뜨게되었다. 따라서 白70으로는 71자리를 이어 연해두는 것이 온건했는데 白70의 시점에서 張5단은 이곳黑을 양곤마로 다그칠 생각이었는가 싶다.

그러나 黑의입장에서 보면 좌상귀 족黑3점을 버릴처럼 이용하여 상변 白세를 한껏 유린한 셈이니 머랄나위도없다.

이과정을 살피면 白74, 76이 혼신의힘을 다하는 공격수라, 상변 黑일단이 궁지에 몰리는가 싶었다.

그러나 黑은 77에서 85까지 徐6단 일류의 強手로 오히려 白집을 깨면서 활로를 남아나왔으니 白은 한것이 없다. 다만 이수순에서 黑79, 81등은 보통이면 보류해야 한다니 욕의티랄까.

그리고 白은 84, 86이 최선이지만 黑87까지로 되어선 白의열세가 분명해 보인다.

白도 이제와서는 88로 상변을 개척하고 다시90으로 달려 큰곳을 차지할 밖에 없다는판단. 하나 黑은 유유히 89로 중앙의 요소에 선착하더니 계속 黑91. 준엄한 수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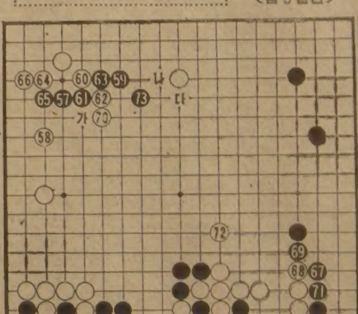
그렇다고 白90으로「가」자리를 지킬겨를도 없다. 白「가」면 당장90자리를 黑에게 앗기어 전체실리가 부족하기때문이다. 白92로도「가」의곳에 가일수하면 무사하지만 첫째 박력이 없다.

白92는 비장한저항. 그러나 이하黑105까지 黑의우변이 굳어져 白은 여전한 고전이다. 【一凡】

#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1局 第4譜 57~73 (각 5시간 덤 5집반)

白 (5段) 張秀英 〈3勝〉
黑 (6段) 徐能旭 〈3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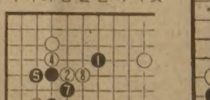


棋諺에「先作40戶면敗勝」이라는것이 있다지만 이바둑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가싶다. 하변 黑大家가 너무도 견고하게 두드러져 보이고 이것은 또 중앙에 발전하며 적세를 위협할수도있다.

한말로 해서 黑의호조가 분명한데 徐6단은 좌상귀를 黑57로 걸치고 白58의 협공을 당하자 그제까지 노타임으로 두어가던 손길을 멈추고 생각한다. 그리고 3분뒤에 기세좋게 黑59. 뜻밖이었다. 평범하게「가」자리에 모해나갈줄 알았고, 국후평도 역시『59는「가」라야 정당하다』는 것인데 徐6단은 뭔가 솟구치는 투지를 주체하지못한 모양이다.

그런데 여기서 白도 의외의 수단을 서슴없이 들고나왔다. 바로 60, 62。 아마張5단은 일단黑돌을 兩分해놓고 양곤마로 만들어볼 심산이었는듯。 그러나 60、62자체가 이른바 행마법에 벗어난곳이고 또 이왕 양곤마로 만들려면 참고도라야 옳았다는중론이다.

## 左上의 문제점들



참고도면 黑1 (실전보의 黑59)에 대해白2이하8까지黑이괴로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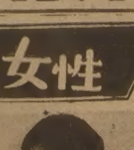
白66때 黑67은 다음 黑70으로 몰아잡으려는 축머리。 그러나 국후검토때는『67로「나」에 뛰어붙여 白70이면 黑「다」로 젖히는 것이 어땠느냐』는 제안이 많았다.

白68로 71에이어 연해두면 黑70으로 몰아 회돌이축에 걸리는것을 확인하실것.

결국 본보黑73까지 白은 여전히 고전이다。 그렇다면 70은 달리두는수가 없었는지。 【一凡】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월24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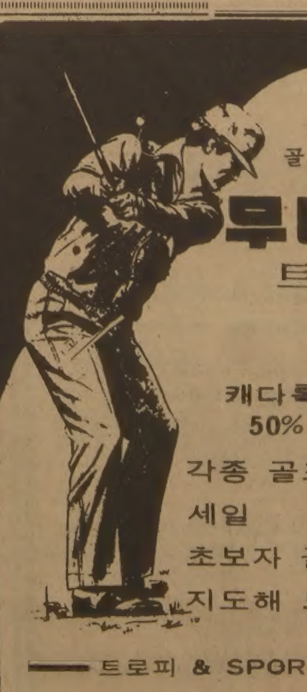
주간女性




몸은 40代 마음은 아직도 女學生
—「글벗모임」의 주부12명 "同人誌도 내겠다"
柳仁村이 내세운 結婚 조건
결혼 10년기념 부부 壽石展
탤런트 朴良禮의 인기 秘訣
續·暴女列傳 嬲姬편
首席 졸업 女大生 공부 秘話
南珍의「화려한 데뷔 시절」
스캔들의 女王 리즈·테일러
안방 극장서 모습 감춘 張美姬의 안팎 事情
새벽길 매춘 魔手에 납치된 女大生의 告白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298 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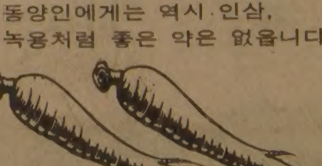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 民事訴訟구조제도 곧 실시

## 大法院 절차·규정 빠른시일내에 制定키로

### 庶民대상

## 訴訟費 猶豫하거나 빌려줘

## 勝訴가망 「輪禍·公害」우선

소송비용이 없어 민사소송을 내지못하는 서민들을 구조해주는 「민사소송 구조제도」가 곧 실시된다。대법원은 19일 서민들을 위한 법률복지책인 민사소송구조제도가 법률상으로는 규정돼있으면서도 그절차와 규정등이 마련돼있지 않았음을 감안, 빠른 시일안에 그 절차를 규정키로했다。

이에따라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金容喆법원 행정처장)는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빌려주고 승소후 받아들이는 절차를 정한 「소송비용의 국고체당(替當)에 관한 규칙(시안)」을 이미 마련, 최종안이 확정되는대로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케할 방침이다。

민사소송구조제도란 민사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명자료를 갖춰 구조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승소가망이 있다고 판단되면▲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고▲집달리의 보수나 법원에서 선임을 명한 변호사의 보수지급을 유예하며▲소송비용의 담보를 면제해주고 재판승소 확정판결후 비용을 납입받는 제도다。

이제도는 민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돼있으나 그절차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사문화된 상태에 있었다。

이 때문에 兪泰興대법원장도 지난해 12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의 훈시를 통해 『법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법원의 문턱이 높아 발길을 돌린다든지 비용이나 지식의 결핍으로 법원을 찾지못하게 된다면 법원은 이러한 국민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지못하게 될것』이라고 지적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제도를 적극활용함은 물론 민사소송에서의 구조제도도 적극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었다。

대법원이 마련중인 규칙의 내용은 소송비용가운데 소장에 첨부해야할 인지액은 구조결정문으로 대신해 그납입을 유예해주며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부담해야할 ▲증인 감정비▲검증에따른 법관출장비▲송달료▲관보공보비등은 국고에서 빌려쓰고(替當) 패소자에게 승소확정판결후 집행해 갚는등의 절차를 규정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산하 대한법률구조협회와 서울통합변호사회가 서민들을 위한 법률구조활동을 벌이고있으나 법원이 직접 법률구조를 벌인다는것은 사법부가 법률복지에 관심을기울이기 시작했다는점에서 큰의의를갖는다。

대법원은 특히 이제도가적극 활용될경우 대회사를 상대로 한▲교통사고 손해배상▲공해등으로 인한 집단 소송에서 크게효과를 거둘것으로 보고있으며 각급법원에도 이두가지 소송에는 우선적으로 구조신청을 받아들이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것은 구조신청이 승소가망이 있어야만 받아들일수있다는 제약을 고려한것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경우, 피고(피의자)와 원고(피해자)간의 과실상계(相計)정도에 따라 그 배상액에 차이가 있을뿐 원고(피해자)의 승소가능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운데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보상액을 받고 합의해주거나 브로커를 동원한 악덕변호사에 걸려 소송을 벌여 승소하고도 보상액의 대부분을 빼앗기는 사례가 많았음에 비추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소송구조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될경우 큰 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초만원 즉결재판소 18일 경찰이 교통질서 위반자를 집중 단속하자 서울시내 각 즉결재판소는 초만원이 됐다。 서울西大門즉결재판소의 경우 통금해제이후 하루평균 1백50여명이던 즉결피의자가19일에는 10배에 달하는 1천5백여명이 몰려 크게붐볐다。 이날 黃大鎬판사는『단속 첫날이므로 구류대신 벌금형으로 모두 돌려보내겠으나 다음부터는 모두 구류처분하겠다』면서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스스로지켜 줄것을 당부했다。 【崔東完기자찍음】

## 徐內務 江原道순시

### 庶民위주 豫算집행

【崔奎植기자】徐廷和내무장관은 19일 강원도를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올 지방예산은 영세서민의 생활과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투자하라』고 지시했다。 徐장관은 또 지역개발사업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주민들의 건설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라고 시달하고 통금이 해제되지않은 지역의 개발에 적극 힘쓰도록 당부했다。

## 交通위반 4천여명 기습團束

### 步行위반 3천4백 위반車輛

서울시경은 통금해제이후 문란해진 야간교통질서를 바로잡기위해 18일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동안 서울전역에서 불시에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투망식집중단속을 실시, 3천4백82대의 위반차량과 5천6백87명의 보행위반자를 적발했다。 이는 경찰사상 집중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숫자이다。

경찰은 위반차량중 23대를 형사입건하고 4대를 즉심에, 나머지 3천4백55대는 통고처분했으며 보행위반자는 4천6백11명을 즉심에, 1천76명을 훈방조치했다。

## 嶺湖南지방 雪禍

## 淳昌눈 52.5cm나

【光州·全州·釜山·濟州=聯】18일부터 19일까지 호남과 경남지방에 내린눈은6~52cm의 적설량을기록,국도와 지방도로 55개소의 교통이 두절되었다。 전남지방의 경우 강추위속에 海南·靈岩23cm、咸平14cm、和順15cm、羅州·長城10cm등 평균8.5cm의 눈이내려 19일하오까지 光州—和順간을 비롯,和順—求禮、寶城郡筏橋邑—長興邑、海南—靈岩、寶城郡文德面—會泉面등 국도10개소와 지방도 16개소의 도로에 차량통행이 중단되었다。 전북지방은 淳昌郡雙置面의 52.5cm를 최고로 평균 13.9cm의 눈이내려 鎭安—茂朱간 국도35km를 비롯,국도와 지방도로 24개소의 교통이 끊겼다。 또 경남지방은 이날 6cm의 눈이내려 咸陽郡咸陽邑에서 팔령고개까지의 국도13km와 陜川郡伽倻面에서 海印寺까지의 국도 7km가 두절됐다。

濟州지방에도 3백m이상의 고지에는 최고50cm의 눈이 내려 濟州市와 西歸浦市를 연결하는 제1·제2횡단도로와 9개 버스노선등 11개도로가 두절됐으며 초속14~18m의 강풍으로 육지와의 모든 교통수단이 끊겨 2천여관광객이 발이 묶였다。

◇18일상오 폭설로 고속도로운행이 막히자 도로공사직원들이 모래를 깔고있다。【호남고속도로에서=聯】

## 寒波 오늘大寒고비로 주춤

### 24일께 전국에 비·눈내려

20일은 大寒。 중앙기상대는 지난12일부터 연8일째계속된 추위는 이날을 고비로 서서히 풀리기 시작, 20일최저기온은 서울영하10도,중부지방영하9~14도,남부지방영하4~11도로 예년기온과 비슷하고 21일에는 기온이올라 서울 영하8도, 중부영하11도,남부영하4~6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또 기상대는 이같이 예년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데 24일께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상대는 19일상오10시를기해 호남서해안과 내륙지방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하고 이날상오11시와 하오3시를 기해 서해남부해상과 남해일원및 동해일원, 울릉도·독도근해의 폭풍주의보를 각각 해제했다。

## 避港하던漁船 침몰

### 濟州남쪽、8명실종

【釜山=聯】18일 상오10시께 濟州도남쪽 1백km 남지나해상에서 풍랑을 피해 濟州항으로 피항하던 주식회사 금수(부산시影島區大平洞)소속 기선저인망어선 제302금수호(1백24톤·선장朴태종·41)가 침몰, 선원 13명가운데 선장 朴씨등 8명이 실종되고 5명은 같은회사 소속 제301금수호(1백50톤)와 303금수호(〃)에 의해 구조됐다。

사고선은 같은회사소속 어선3척과 함께 남지나해역에서 선망조업을 벌이다 심한 풍랑을 만나 濟州항으로 피항하던중 높은 각파도에 맞아 선체가 뒤집히면서 침몰됐다。

실종자명단은 다음과같다。▲선장 朴태종(41·부산影島區新仙洞1街219)▲선원 河두복(47·전남高興郡南陽面月亭里)▲金길용(36·부산影島區영선동4街89)▲金준모(40·부산西區南富民洞69)▲高영금(23·전남珍島郡古郡面)▲趙호각(32·馬山市)▲金한기(32·전남海南郡松旨面)▲李용철(42·경남梁山郡梁山面)

## 경찰公務員봉급 평균9%引上

국무회의는 19일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평균 9%인상하는 경찰공무원 보수규정개정령을 의결했다。

인상된 경찰공무원의 봉급은 치안총감이 60만9천원(4월분부터)、20호봉기준 치안정감은 50만8천원, 치안감은 43만9천원이며 경무관은 39만2천원, 총경은 37만1천원이다。

경정15호봉은 31만6천원이고 경감15호봉은 27만2천원이며 경위10호봉은 21만5천원이다。 10호봉경사는 19만4천원, 경장10호봉은 18만9천원이다。

국무회의는 또 檢事의봉급을 평균4.5~9.1% 인상키로했다。 이에따라 일반검사 5호봉(4월분부터)의 경우 40만9천원, 地檢검사장의경우 60만9천원으로 봉급이 인상된다。

## 서울 23개警察署 刑事기동대 發隊

서울시내23개경찰서의 형사기동대가19일상오 서울汝矣島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통금해제에 따른 치안수요와 각종범죄에대비한 형사기동대는 각서별로 기동대원들이 미니버스1대、포니승용차2대등을 타고다니며 순찰을하고 전자경찰봉과 범인제압용 가스분사기등 최신장비를 갖추어 중요사건발생시에 신속히 출동, 초동수사를 하게된다。

## 大邱地檢

# 不當한 警察수사 즉각中止

## 「遞任요구권」발동하기로

### 警正이하 대상…수사관 교체

【大邱=聯】大邱지검은 앞으로 강력한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하기위해 경찰에 대해 체임(遞任)요구권을 발동하기로했다。

大邱지검 安熙相검사장은 19일낮 大邱지검에서 열린 관내 지청장회의에서 경정(警正)이하의 수사경찰관이 직무집행중 부당한 행위가 있을때는 수사를 중지토록 경찰에 요구하고 수사담당자를 바꾸도록 하는 검찰의 체임요구권을 발동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安검사장은 또 경찰에서검찰로 송치하는 형사사건들을 연 2회씩 종합심사·분석해 수사과정에 과오가 많은 경찰관에 대해서도 역시 체임요구권을 발동하라고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大邱지검이 지난 한햇동안 관내 수사경찰관들의 송치사건에 대해심사·분석한결과 수사경찰들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수사를한 사례가 많고 중요범죄사실들을 빠뜨리는등 수사경찰의 기본교양이 부족한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 解決士 두목에 징역7년 선고

【大邱=聯】大邱지법 金인수판사는 19일 해결사조직단 鷄보파 두목 孫圭鎬(39·大邱市南區鳳德3洞1327의16)과 조직원 金순배피고인(34·大邱市壽城區晩村2洞9의12)에 대한 폭력등 사건선고공판에서 孫피고인에게는 징역7년(구형10년)、金피고인에게는 징역4년(구형7년)을 각각 선고했다。

## 버스끼리 정면衝突 慘事

## 2명死亡 28명부상

【仁川=聯】19일 하오1시20분께 경기仁川市南區間石—洞山10번 경인국도에서 서울발 仁川행 강남여객소속 경기5아5379호 시외버스(운전사 이상만·34)가 마주오던 인천5자7237호 시내버스(운전사 최범철·37)와 정면충돌, 시내버스에 타고있던 20대 여자승객2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두버스의 운전사 2명등 모두 28명이 중경상을 입고 富平서울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다。

이날사고는 시외버스가 사고현장부근 오른쪽에있는 동암역에서 갑자기 경인국도로 나오던 번호미상의 승용차를 피하기위해 핸들을 좌측선쪽으로 꺾는순간 맞은편에서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일어났다。

경찰은 숨진 20대 여자승객의 신원을 수배했다。

## "우발적犯行"

### 朱永炯 公判서주장

李潤相군유괴살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전京西중 체육교사 朱永炯(29)、李모(18)、高모양(18)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공판이 19일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합의13부(재판장 申性澤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반대신문과 검찰측 보충신문이 계속됐다。

이날 공판에서 朱피고인은 국선인 丁廣鎭변호사의 반대신문에서 『潤相군을 교외면담차 만났을때 무의식중에 潤相군의 의혹을 사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며 협박전화등을 한것도 금전을 목적으로 한 유괴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民族개화 「自生운동」으로

## 國校 人物 中學 政治 高校 文化史중심

### 새 國史교과서、王朝중심時代구분 탈피

올해부터 초·중·고교생들이 배우게될 새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밝혀졌다。 국민학생은 1학기부터、중·고교생은 2학기부터 사용하게될 새국사 교과서에선 「東學혁명」이 「東學운동」으로 바뀌고 檀君의 개국연도인 BC2333년과 弘益人間등이 처음으로 명문화되고 百濟의中國진출, 新羅와 唐과의 통일전쟁이 강조되는등 민족주체사관에 의해 그 내용과 기술방법이 대폭 개편됐다。

또 현대사의 보강을위해 지금껏 1권 3백20페이지로돼있던 중·고교교과서를 2권(각각2백페이지)으로 분리편집、1권은 선사시대부터 李朝英正祖까지、2권은 實學시대부터 제5공화국까지를 담았으며 국민학교5·6학년은 종전의국사교과서를 사회과에흡수, 사회5—2、사회6—2로 바꾸어 주4시간씩 한학기에 이수하도록했다。

새중·고국사교과서는 특히 역사발전과정을 능동적인 입장에서 기술,우리민족의개화와 근대화과정을 외부의힘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자생적 운동으로보고 청기시대의 상한수정등 고대사 분야에서 최고2~3천년앞당겨 확립된 새 학설을 싣고있다。

새교과서는 한국의 현대사가 안고있는 역사적과제를해명키위해 근대이후의 역사내용을 상술하는 한편 朴正熙대통령의 경제개발과 南北平和會談의 평가와함께 제5공화국이 시작하는 全斗煥대통령의 등장까지를 싣고 있다。

전체적인 기본방향은 국민학교는 주제및인물중심사, 중학교는 정치、왕조중심사, 고등학교는 사상·문화사중심으로 개편하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국사상의 시대를고대·중세·근세·현대로구분,시대별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근대화운동, 자주운동, 일제침략하의 독립투쟁을 대폭보강했다。

국민학교는 지금까지의 연대기적기술방법을 완전히 버리고 흥미있게 읽을수있도록 이야기등 생활중심의 국사로 바꾸었다。

## 한국일보 詩壇

### 시래기국

黃松文

고향 생각이 나면
시래기국집을 찾는다。
해묵은 뚝배기에
둥섬 둥섬 떠있는
붉은 고추 푸른 고추
보기만 해도 눈시울이 뜨겁다。
노을 같이 얼큰한
시래기국물 훌훌 마시면,
뚝배기에 서린 김은 煙이 되어
鄕愁 젖은 눈에 방울방울 맺힌다。
시래기국을 잘 끓여 주시던
할머니는 저승에서도
시래기국을 끓이고 계실까。
새가 되어 날아간
내 딸아이는
할머니의 시래기국 맛을 보고 있을까。
고향 생각을 하다가
할머니와 딸아이가 보고 싶으면
시래기국집을 찾는다。
내가 마시는 시래기국물은
失鄕의 눈물인가。
내 얼큰한 눈물이 되어
한서린 가슴, 氷壁을 타고
뚝배기 언저리에 방울방울 맺힌다。

결혼예물, 보석및 사세...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Queen
Bay
Temperance St.
Yonge
King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 오후8시30분~새벽1시
목,금,토,일,: 권순근 악단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 프로라면 逆境에 더강해야

## 崔忠日의 근본 敗因 — 맷집등 體力劣勢 보완했어야

### 5회 다운뺏고도 먼저脫盡
### 빅게임 안거쳐 「아마」티 如前

16일밤의 崔忠日—나바레테타이틀매치를 보면 崔는 아직도 아마추어의 때를 벗지못한 프로선수였다. 요즘 야구계서는 아마대표선수들의 프로진출문제와 관련, 야구협회와 야구위원회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있다. 너무나 아마적인 프로선수, 너무나 프로적인 아마선수. 이것은 한국 스포츠가 직면한 적나라한 현실이다. 아마는 아마답게, 프로는 프로답게 키워나갈때 비로소 아마와 프로의 共存관계는 이루어지는것이 아닐까하는 느낌이다. 체력의 열세, 맷집과 프로根性의 부족을 崔의 패인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기자의 느낌으로는 정신면에서 역경에 강하지못했다는 점과 기술적인 면에서 집중공격력의 부족이 가장 두드러진 패인이었다.

### 6회 攻擊늦춘게 결정적 失敗

현대의 권투는 날로 스피드화 해가고 격렬하며 공격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팬들도 KO를 기대할수 없는 경기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기때문에 선수와 트레이너들은 판정승을 목표로하지 않고 KO승을 지향, 높은 KO율의 선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추세이므로 역경에 강하지않고서는 프로무대에서 견딜수없는것이 현실이다.

崔와 나바레테가 역경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는것은 결과가 증명해주었다. 5회에 소나기연타를 맞고 녹다운, 그로기가 된 나바레테는 프로선수 특유의 강인함과 트릭으로 위기를 벗어나 10회, 11회에서 게임의흐름을 역전시킨반면, 崔는 나바레테의 적은 펀치를 견뎌내지 못하고 침몰하고 말았다. 대미지 (펀치로 입은 충격)의 강도가 문제이겠지만 역경을 극복하는 역량에서 나바레테는 월등 앞서있었다.

심리학자들은 프로선수의 제1요소로 강인한 정신력을 꼽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역경에 강하지않고는 좋은 프로선수가 될수없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나약해지면 결정적인 대미지를 입지않았는데도 더 펀치를 맞는것이 싫어서 등을 돌리고 경기를 포기하거나 다운된후 일부러 일어나지 않게도되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프로선수들을 보면 정신을 다듬어 역경에 강해지는 노력을 쌓기보다는 잔재주의 아마추어적인 기술로 자기는 맞지않고 상대만 때리겠다는 환상에 빠져있는 선수들이 의외로 많다. 비록 동양챔피언에 머물렀지만 지난날 金炫과 같은 한 정신력의 선수가 프로의 전형이다.

崔는 몬트리올올림픽 한국대표, 7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화려한 경력과 함께 아마에서 78승5패를 기록, 79년5월 프로전향후 13연승(12KO)을 마크하고 나바레테와 대결했으나 프로기질이 몸에배지않아 세계타이틀을 눈앞에 두고도 이를 차지하지 못했다. 92%의 KO율은 숫자로나 타난 바날 메이커였을뿐 펀치의강도에서도 나바레테가 위력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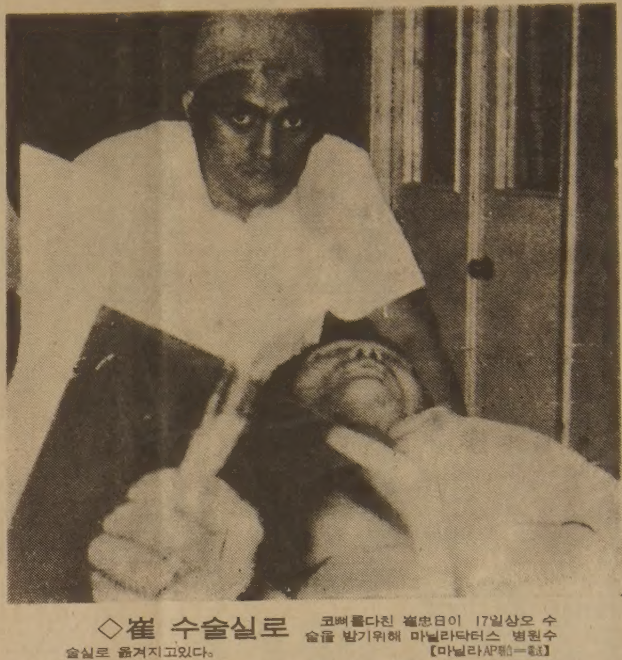
崔—나바레테전은 승패를 떠나 나바레테가 되풀이 된 격렬한 승부였고 기억에 남을만한 타이틀 매치였다. 아쉬운 점은 5회에 나바레테를 녹다운시켜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崔가 어째서 6회서 고삐를 늦추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손목을 다친데다가 벨트이하 (사타구니)를 가격당해 힘을 쓸수없었다는게 외신보도였다. 그렇더라도 6회서 쫓지 못한 듯 몰아붙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崔는 공격진로만이 미흡한 KO율을 보이는 선수다. 이것이 서툴러 KO를 놓친 셈이다. 崔는 국내 현역선수가운데 원투스트레이트와 연타기량에서는 가장 뛰어난 선수로 정평이나있다. 그러나 그의 連打는 「치는공격」이 아니라 「맞히는 공격」이어서 급소를 명중시키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또한 펀치의 강약을 조절하지못한 느낌이었다. 連打를 칠때 강약을 붙여 나가지 않는다면 일류선수가 되기어렵다.

따라서 표적을 맞히는 공격에서 때리는공격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요즘 선수들은 트레이너가 치기 쉬운 자세로 대주는 미트로 연타 훈련을 쌓고 있는데 실전에서 상대는 쉴사이없이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상대의 방어반응보다 빠른 스피드로 따라붙어 공격을 집중시키는 힘만 있었더라면 崔忠日은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귀국했을지 모른다. 【鄭在契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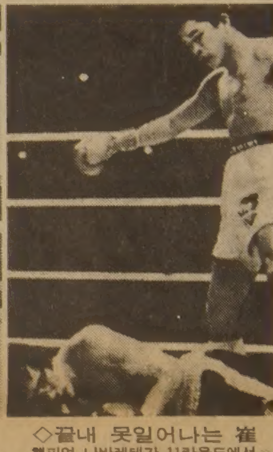
나바레테는 경기후 가진 기자회견서 『崔는 대단한 선수다. 프로선수 생활에서 처음 녹다운되었으며 崔의 치고 빠지는 스타일에 당황했다』고 말했다.

【마닐라17日UPI=聯合】 16일밤 WBC (세계권투 평의회) 주니어 라이트급 타이틀매치에서 챔피언 롤란도·나바레테에게 KO패 당한 崔忠日은 이번 경기에서 코뼈를다쳐 수술을받았다고 마닐라병원의 의사들이 17일 말했다. 의사들은 崔가 코뼈골절상으로 약30분간에걸친 수술을 받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의 부상이 심각한것은 아니며 곧 퇴원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를 치료한 한 의사는 崔가 『강인한사람』으로 현재 그가 필요로하는것은 휴식뿐이라고 말했다.



◇崔 수술실로 — 코뼈를다친 崔忠日이 17일상오 수술을 받기위해 마닐라닥터스 병원수술실로 옮겨지고있다. 【마닐라AP聯合=聯合】

◇先制다운 뺏어 — 5회 2분35초께 나바레테가 崔忠日의 소나기 펀치를 맞고 프로생활에서 처음으로 녹다운되고있다. 【MBC—TV中繼찍음】



◇끝내 못일어나는 崔 — 챔피언 나바레테가 11라운드에서 다운된 도전자 崔忠日을 내려다보고있다. 【마닐라16日AP聯合=聯合】

## WBC슈퍼페더 타이틀戰
# 崔忠日 11회 KO敗
### 나바레테에 왼쪽턱 카운터 맞고

【마닐라16日=聯合】 주니어 라이트級 세계패의꿈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프로복싱WBC슈퍼플라이급1위인 한국의 崔忠日 (24)은 16일밤 이곳 리잘야구장특설링에서 동급챔피언인 필리핀의 롤란도·나바레테 (25)에 도전, 녹다운을 주고받는 타격전끝에 11회에서 왼쪽턱에 카운터펀치를 맞고 1분35초만에 역전KO패, 정상정복에 실패했다.

崔忠日은 5회 막판에 소나기連打로 나바레테를 녹다운시켜 KO승의 기회를 잡았으나 마무리작업미숙으로 끝내 결정타를 날리지못했다. 주무기인 원투스트레이트로 중반까지 好調의 페이스를 지키던 崔는 9회부터 급격히 체력이 떨어져 10회서 나바레테의 안면에 소나기連打를 퍼붓다가 역습을 받아 녹다운을 허용, 결정적인 열세에 몰렸고 끝내 11회 접어들어 나바레테의 오른쪽 훅 결정타에 무릎을 꿇고말았다.

WBC 지명도전자인 崔를 KO로 물리쳐 타이틀 1차 방어에 성공한 왼손잡이 나바레테는 이날 많은 펀치를 맞았으나 맷집과 노련한경기운영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며 특히 스피릿이 뛰는듯한 카운터 펀치가 일품이었다. 崔의 결정적 패인은 체력의 열세였지만 나바레테가 녹다운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못한 6회전에들어 소극전을 편것이 아쉬웠다.

한국 프로복싱은 崔가 KO패함으로써 徐強一·金賢治·金台鎬·吳英鎬를 포함, 주니어라이트級 세계도전서 내리5 連敗를기록했으며 주니어라이트級은 「마의체급」으로 등장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부처와 이멜다영부인을 비롯, 8만여 관중이운집, 두선수의 열전을 관전했다. 崔는 10회까지 심판3명의 채점서 앞서 있었다.

한편 나바레테는 멕시코의 라파엘·리몬과 90일 이내에 2차방어전을 가질것으로 알려졌다.

## 崔忠日 입원
### 코뼈手術血尿도

【마닐라16日AP=聯合】 나바레테에 KO敗한 崔忠日은 경기가 끝난후 마닐라병원에 급히 입원했다. 병원의 의사들은 崔가 이번 시합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할수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崔忠日선수의 아버지와 매니저는 崔의 소변속에 피가 섞여나온다고 밝혔으며 시합중 오른쪽눈에도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崔가 6회에 나바레테로부터 사타구니를 가격당한것이 불명하다고 덧붙였다.

◇J·라이트級 도전자(한국)

| 때 | 장 소 | 챔피언 | 도전자 | 결 과 |
|---|---|---|---|---|
| 65.12.4 | 마닐라 | 엘로르데 | 徐強一 | 판정패 |
| 75.3.14 | 마닐라 | 빌라플로 | 金賢治 | 판정패 |
| 77.11.20 | 상 환 | 세 라 노 | 金台鎬 | KO패 |
| 78.7.9 | 상 환 | 세 라 노 | 吳英鎬 | KO패 |
| 82.1.16 | 마닐라 | 나바레테 | 崔忠日 | KO패 |

# 월드컵蹴球 1차리그 對陣확정
## 6월13일 開幕경기 아르헨티나—벨기에
## 6개조에 톱시드 1팀씩 先配定
### 上位 2팀이 2차리그進出
### 4개조 1위끼리 決勝토너

【마드리드16日=外電綜合】 단일 대회로는 세계최대규모를 자랑하는 82년도 스페인 월드컵축구대회의 조편성 추첨이 17일(한국시간) 실시되어 對陣을 확정했다.

월드컵 대회사상 가장많은 24개팀이 출전하는 금년도 월드컵本選은 한組에 4개팀씩 모두6개組의 1차리그를 벌여 각조1, 2위팀이 4개조로나뉘어 2차리그를 펼친뒤 2차리그의 1위팀이 준결승전을 갖도록 되어있다.

이날 조편성추첨은 스페인의 펠리페왕자의 주재로 진행, 세계50여개국에 TV중계되었으며 브라질과 소련등 우승후보로 꼽히는 강팀들이 1차예선리그부터 격돌하게 되어 관심을 끌고있다.

조편성 추첨에서는 우선 6개의 톱시드국 (이탈리아, 서독,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스페인, 브라질)을 1차리그 6개組 상단에 배치함으로써 시작됐다.

대회는 6월13일 3조의 아르헨티나—벨기에의 경기로 개막되며 결승전은 7월11일에 열린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을 대표한 쿠웨이트는 1차리그에서 4조에, 뉴질랜드는 6조에 각각 편성되었다.

◇1차리그조편성 (6월13~25일)
▲1조=이탈리아 폴란드 페루 카메룬
▲2조=서독 알제리 칠레 오스트리아
▲3조=아르헨티나 벨기에 헝가리 엘살바도르
▲4조=잉글랜드 프랑스 체코 쿠웨이트
▲5조=스페인 온두라스 유고 북아일랜드
▲6조=브라질 소련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2차리그조편성 (6월28~7월5일)
▲A조=1조1위 3조1위 6조2위
▲B조=2조1위 4조1위 5조2위
▲C조=6조1위 1조2위 3조2위
▲D조=5조1위 2조2위 4조2위

◇준결승토너먼트
▲준결승전 (7월8일) A조1위—C조1위 B조1위—D조1위
▲3, 4위전 (10일)
▲결승전 (7월11일)

◇1차리그 對陣 (6월13~25일)

| 일자 | 대 진 | 조 |
|---|---|---|
| 13 | 아르헨티나—벨기에 | (3조) |
| 14 | 이탈리아—폴란드 | (1조) |
| 14 | 브라질—소련 | (6조) |
| 15 | 페루—카메룬 | (1조) |
| 15 | 헝가리—엘살바도르 | (3조) |
| 15 | 스코틀랜드—뉴질랜드 | (6조) |
| 16 | 서독—알제리 | (2조) |
| 16 | 잉글랜드—프랑스 | (4조) |
| 16 | 스페인—온두라스 | (5조) |
| 17 | 칠레—오스트리아 | (2조) |
| 17 | 체코—쿠웨이트 | (2조) |
| 17 | 유고—아일랜드 | (5조) |
| 18 | 이탈리아—페루 | (1조) |
| 18 | 브라질—스코틀랜드 | (6조) |
| 18 | 아르헨티나—헝가리 | (3조) |
| 19 | 폴란드—카메룬 | (1조) |
| 19 | 벨기에—엘살바도르 | (3조) |
| 19 | 소련—뉴질랜드 | (6조) |
| 20 | 서독—칠레 | (2조) |
| 20 | 잉글랜드—체코 | (4조) |
| 20 | 스페인—유고 | (5조) |
| 21 | 알제리—오스트리아 | (2조) |
| 21 | 프랑스—쿠웨이트 | (4조) |
| 21 | 온두라스—아일랜드 | (5조) |
| 22 | 페루—폴란드 | (1조) |
| 22 | 벨기에—헝가리 | (3조) |
| 22 | 소련—스코틀랜드 | (6조) |
| 23 | 이탈리아—카메룬 | (1조) |
| 23 | 아르헨—엘살바도르 | (3조) |
| 23 | 브라질—뉴질랜드 | (6조) |
| 24 | 알제리—칠레 | (2조) |
| 24 | 프랑스—체코 | (4조) |
| 24 | 온두라스—유고 | (5조) |
| 25 | 서독—오스트리아 | (2조) |
| 25 | 잉글랜드—쿠웨이트 | (4조) |
| 25 | 스페인—北아일랜드 | (5조) |

## 8월에 서울서開催 五輪배구 코치講習

배구협회는 IOC가 주관하는 올림픽 솔리다리티 아시아지역코치강습회를 오는 8월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서 개최할 계획이다. 참가규모는 19개 아시아연맹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강사및 참가코치의 체재비등 경비를 IOC가 지원하게돼있어 협회는 재정부담에 대한 구체적 통보가 오는대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설방침이라고 협회관계자는 밝혔다.

## 프로野球 MBC靑龍팀 選手22명으로 26일 創團

프로야구팀 MBC靑龍은 오는26일 文化체육관에서 창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MBC靑龍은 河基龍(商銀)·鄭淳明(韓化)등 투수8, 포수4, 내야수5, 외야수5명등 22명의 계약을 매듭짓고 4월에제대하는 星武소속의 李光殷과 星武의 金泰起, 대표팀에 선발된 金在博(한화)과 李海昌(롯데)을 보강할 예정이다.

MBC靑龍에 드래프트된 金重根(한화)은 星武 제대후 아마추어선수로 남을의사를 표명, 계약을 포기했다.

해태·타이거스는 현재10명의 선수계약을 끝냈으며 30일 상오11시 해태본사 강당에서 23명의 선수로 창단식을 가질예정이다. 계약대상 선수들이 비교적 어린편이어서 신중을 기하고있는해태는 계약이 확정된선수들에게는 개별훈련을 쌓도록 하고있으며 2월1일부터는 光州에서 합숙훈련을 가질계획이다.

# 李起雄 6연승 先頭 패주
### 國際주니어大會 卓球대표選拔戰
## 여자부 金美姃도 7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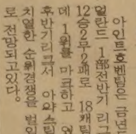
【釜山=聯合】 82년 국제주니어 오픈 탁구선수권대회 파견 최종2차선발전이 19일 九德체육관에서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풀리그로개막, 남자경기에서 지난1차선발전 랭킹1위인 李起雄(대전동아공)이 吳必圭(대전대신중)·嚴正吉(강원성수중)·李相德(대구심인고)·尹基榮(시온고)·吉昌憲·金善吉등 6명을 각각2—0으로누르고 6승을 기록, 선두를달리고있다.

1차선발전 랭킹6위의 朴容民씨 (대구심인고)도 河在應(청주고)·李相德·金善吉·宋德圭(동대부중)등을 차례로 누르고 5승으로 2위를 마크하고 있다. 李起雄에 1패를 기록한 尹基榮은 4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여자부경기에서 金美姃(이일여중)은 동료 申賢淑·李桂仙·安仙花·洪壽蘭등을꺾고 7승을 마크, 선두에 나섰다. 安美女高의 河美容과 崔錦玉이 각각 4승과 4승1패로 2·3위를 달리고있다.

올해 캐나다,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될 국제대회의 참가자격을 결정하는 이번선발전에는 지난12월 1차선발전 랭킹20위까지의 선수와 연맹추천선수 10명등 남녀각각30명이 4일간 풀리그로 4백35게임을 벌인다.

## 許丁茂소속 和아인트호벤팀
## 대통령배 蹴球참가



◇許丁茂선수

許丁茂가 뛰고있는 네덜란드 프로축구 PSV아인트호벤팀이 오는4월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열리는 제12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할것으로 알려졌다. 아인트호벤팀은 결승전까지 6게임에출전할경우 6만달러의 대전료를 받게될것으로 보인다.

아인트호벤팀은 금년도 네덜란드 1部전반기 리그에서 12승2무2패로 18개팀가운데 1위를 마크하고 있으며 후반기리그서 아약스팀등과 치열한 순위경쟁을 벌일것으로 전망되고있다.

## 코글러選手 우승 월드컵 스키점프

【札幌(日本)17日AP=聯合】 오스트리아의 아민·코글러는 17일 日本북부 삿뽀로(札幌)의 오꾸라야마 스키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스키대회 최종일 90m점프경기에서 2백46·3점을 획득, 1위를 차지했다.

## 中高氷上 폐막
# 서울高 종합우승
# 崇義女高 3連覇

【春川=聯合】 서울高가 17일 江原道 春城郡新北面泉田里샘밭 특설링크서 막을 내린 제18회 전국남녀중고빙상대회에서 67점을 얻어 서울商高(30점)를 따돌리고 종합우승, 2연패를 차지했다.

여고부서는 崇義女高가 52점으로 1위에올라 3연패를 이룩했는데 이번대회서는 첫날 남고 3천m에서 裵基兌(서울高)가 4분48초97로 대회신기록 (종전 4분52초1)을 세웠을뿐 기록이 크게 부진했다.

◇최종일 (17일) 기록
▲남고부종합=①서울高②서울商高 30점 ③京畿高29점 ▲동여고부=①崇義女高52점 ②培花女高 17점 ③裕鳳女高15점 ▲동남중부=①議政府34점 ②둔내 28점 ③坡州13점 ▲동여중부=①議政府45점 ②坡州 32점 ③崇義 24점 ▲남고1천5백m①김원혁(京畿高) 2분21초55 ▲동남중부=①조윤영(재현) 2분33초97 ▲여고1천m①李蓮珠(裕鳳女高) 1분40초93 ▲동여중부=①동현주(崇義) 1분48초62 ▲여고3천m=①이경자(일동종고) 5분35초60 ▲동여중부=①金英玉(崇義) 5분53초27 ▲남고5천m=①裵基兌(서울高) 8분24초45 ▲동남중부=①김관규(둔내) 8분51초36

## 亞太洋弓 선수권 7월19일 日本서

제1회 아시아·대양주양궁선수권대회가 오는 7월19일부터 22일까지 日本北海道 오비히로市에서 열린다고 日本궁도협회가 18일 대한궁도협회에 알려왔다.

이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 日本·中共·印度·濠洲등 7~8개국이 참가할것으로 예상된다.

## 렌들選手 覇權차지 마스터스테니스

【뉴욕17日UPI=聯合】 체코의 이반·렌들 (21)은 17일 뉴욕에서 열린 그랑프리 마스터스 테니스선수권대회 결승에서 美國의 비타스·게룰라이티스에게 3—2의 대역전승을 거두어 총43만달러를 타는 우승을했다.

렌들은 이경기에서 처음 2세트를 6—7, 2—6으로 지고 3세트에서 매치포인트까지 몰렸으나 7—6으로 역전시킨 다음 6—2, 6—4로 4·5세트를 가볍게 이겼다.

렌들이 본격적인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기는 이번이처음이다.

## 流星의 賦 <287>

李炳注作 李友範畫

風雅와 策謀 ⑱

히데쓰구가 낭패를 당하고 있을무렵 부장(部將)의 하나인 기노시따도시나오 (木下利直)가 되돌아왔다. 기노시따는 자기의 말을 주어 히데쓰구가 도망가게 한 뒤 덤벼드는 적과 싸우다가 죽었다. 그의 아우 기노시따도시마사 (木下利匡)는 형을 도우려 하다가 역시 전사했다. 히데쓰구는 도망하기에 바빠 기노시따형제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차도 몰랐다.

후군의 붕괴는 단번에 전방에 있는 군대에까지 파급하여 선봉대장 이께다도 그 아들과 더불어 죽고, 명장 (名將)이란 이름이 높았던 모리 (森)도 적의 포위속에서 총을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해서 유쾌군은 전원 궤멸하고 말았다.

나가꾸떼(長久手)의 전투가 있은후 수길은 가강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이옥고 강화(講和)를 맺어서 드디어는 신종(臣從)시키게 이르렀지만 가강에 있어선 이때의 승전(勝戰)이 그의 위망(威望)을 나타내는 최대의 이력(履歷)이 되었다. 수길은 자기의 신(臣)으로만들긴 했으나 끝끝내 가강을 함부로 대할순 없었다. 뿐만아니라 이 전투에 있어서의 승리가 수길의 사후 가강이 천하의 어망(衆望)을 모으는 바탕으로 되었다. 만일 히데쓰구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수길이 이 싸움에 이겨 가강은 패망하여 후일 풍신가(豊臣家)에게 멸망의 화근(禍根)을 남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었다. 결국 수길이 죽은후 천하는 덕천의 것이 되었으니까 말이다.

수길은 이 전투의 패배가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히데쓰구는 알지 못했다. 도망친 직후 히데쓰구는 사람을 수길에게 보내 『다른 장군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히데쓰구로선 기노시따형제 (木下兄弟)가 죽었으니 그들을 대신 할만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게다가 수길 휘하에서 그 용맹으로 알려져있는 이께다센모쏘 (池田監物)를 달라고 지명까지 해왔다.

『네가 이놈, 사람이냐』

고 수길은 히데쓰구의 심부름으로 온 이께야나기 찌스께 (一柳市助)에게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너를 먼저 죽이고 히데쓰구를 죽여야겠다』

고 까지 격분했다.

기노시따를 죽게한 전쟁터에서 도망쳐나왔을 뿐아니라 모리, 이께다부자까지 전사시킨 주제에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그 심보가 얄밉기까지 했다.

(저 녀석은 바보인가)

수길은 패전 자체보다도 이 결정으로 더욱 마음이 어두웠다. 당시 수길에겐 가까운 혈연이라곤 히데쓰구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때 쓴 수길의 편지가 남아있다.

『넌 수길의 조카라는 것을 코에 걸고 엉뚱한 짓을 하는 놈이다. 네 마음 보가 되어먹지 않았다. 금후론 일체 용서가없을 것이다. 한때 나는 널 죽이려고 했다. 마음 고쳐 먹고 근면하면 이 편지를 쓰기로 했다. 마음을 고쳐 먹으면 널 다시 생각해 볼 용의가 있다. … 마음만 고쳐 먹으면 어떤 영지(領地)라도 너게 주마, 그러나 지금과 같은 꼴이면 넌 내 손에 죽어야 한다. 수길이 사람을 직접 죽이긴싫지만 달리 도리가 없다…』

구독신청은 533-2361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 : 최성조
●매매구인광고 : 박정욱
533—2361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한국일보광고부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 6548
이영두, 이전하

가정의 벗 한국일보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화,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색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 3520. 630－8491


## 구 인

TELEX Share하실분을 구합니다.
☎ : 978－6259(B), 226－2618(R) Mr.리

Become Hospital Ward Clerk－Secretary.
$7/Hour. Join 3days training Seminar
☎ : 961－9464

장난감, 선물용물건 판매 세일스맨 구함.
기존 또는 새로 버라이어티 가게등을 발굴해 저회회사 상품을 소개, 판매할 세일즈맨 구함.
☎ : 461－3555

일요일에 일하실 경험있는 스토아 헬퍼(여자분)구함
정오 12시～오후8시까지 위치 : 다운·타운
☎ : 921－0624

• 램프, 갓 미싱 집에서 하실분 구함.
• 영어를 하실수 있어야함.
Lamp Boutique (655 mt. Pleasant Rd.
☎ : 483－7643, 221－4433

고급코트를 만들수있는 친칠라 사육을 원하시는 분. 소자본으로 지하실에서 사육할수 있음.
☎ : 859－4366

스토아 안에있는 POST OFFICE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 : 923－1206

여자 룸 메이트 구함
☎ : 222－3877 (Mrs. 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헬퍼구함.
여자(캐쉬어), 남자(헬퍼)
다운타운 지역임. 시간은 원하는 만큼드림.
오후 7시까지는 ☎ : 368－8138
그 이후는 929－0230으로 연락바람.

한국요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써
5년이상 경험이 있으신분을 구합니다.
월, 토(3시～5 시) ☎ : 532－0602

버라이어티 가게에서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오후5시부터 10시까지 근무(서부지역)
261 스칼렐 로드, ☎ : 767－0762

도나스 가게에서 주말(금, 토)에 밤일하실분
구함. (다운타운) 시간 : 오후11 : 00～오전7 : 00
☎ : 977－2299

## 매매및 양도

TUCK SHOP 가정사정상 매매코자함.
주매상 : $2,500 렌트 : $600(전기, 물세 포함)
한달 순수익 : $2,200
$28,000＋스탁(물게지가능)
(10 : 00 A.M～10 : 00P.M)
☎ : (416)461－5242(미시사가)

주에 6일간 영업(선물, 옷등 기타)
30년간 해오던 잡화상을 귀국관계로 급매함.
가격 : $10,000 ＋ 스탁(대략 $25,000)
* Penny Pincher Store
* 888 Danforth Ave.
☎ 461－9771 Mr. Lue

전망이 밝은 70여개의 가게가 들어선 새로지은
몰 안에 Take－out food Business.
☎ : 299－1713

직접팝니다. 매우 이익이 높은 영·스트릿 & 에그린톤에 있는 빵집(델리카티슨), 건강상 이유로 판매함.
☎ : 낮, 487－2393, 저녁, 481－4687(Teresa)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높은이익 보장합니다.
928 DANFORTH. ☎ : 466－3423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8,000, 머신 $800, 렌트 $550 살림집 포함
☎ : 1－387－3983 권리금 $10,000

오래된 미시사가에 있는 이익높은 꽃집 팝니다.
☎ : (낮)826－1591, (밤)826－3246

①버라이어티(주매상 $5,000) $45,000
②버라이어티(주매상 $4,000) $25,000
☎ : 481－3443(B), 745－5485(R) 황순일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가정사정으로 성업중인 가스바와 버라이어티
가게를 급매코저 함.
년매상 : 가스 바(70만갈론)
주매상 : 버라이어티 스토아($3,150)
위 치 : 하이웨이89×24(Shelburne)
☎ : (519)925－5210 프랭크(오후3시이후 연락바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아파트지역 빌딩내 위치)
텃살과 같음. 해밀톤 시청뒤.
아이들 손님은 없음. 주매상 : $5600. 리스4년＋10년
렌트 : $700(전기, 물세포함) 아스킹 : 80,000＋스탁
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람.
☎ : 1－527－0025 (박)

도나리아(Donnaria)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좋은가게를 구입하실수 있는기회 !
1362 St. Claia W. ☎ : 654－7240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 (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 여자 란제리 판매점 —
다운타운 빌딩안 쇼핑 몰 안에있음.
여자 언더웨어, 나이트 웨어 취급.
장래성이 좋으며, 현재매상 대단히 양호함.
☎ : 363－2601

## 하우스 렌트

3베드룸(방갈로) 차고있음
마캄·로랜스부근 즉시 입주가능
☎ : 822－4480(Mr. 박)

##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 사 진

무지개 칼라 －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8
50 BLOOR ST. W. ☎ : 967－7121

##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PLUMBING(상, 하수도 수리, 시설)
☎ : 465－2584, 531－6246(Mr. Lee)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월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 양 장 점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샐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취심금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주소를 이전하실때 3일전에
꼭 변경통보를 해주십시요.

##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라지에타(개스탱크, 히터,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EDIATOR CO.
☎ : B)245－1978 R)248－6032 김용환

##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넘파·김

##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6 BLOOR ST. W.(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 기 타

ZAP SUREKILLER 38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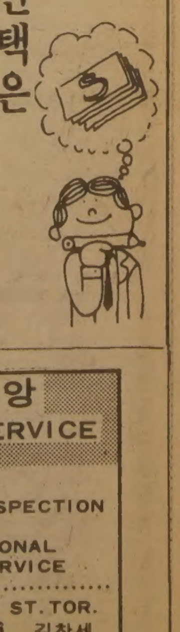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토요일도 광고접수
10:00 a.m.－5:00 p.m.
☎ : 533－2361～4

현명한 광고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4>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①**

시내버스가「오누이의 집」이 있는 언덕밑 까지 연장운행되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해도 버스종점에서 「오누이의 집」까지는 10리길은 좋이 되는 시골길이었다. 그 시골길이 일년만에 도로(道路)가 되어있었다. 아직 포장은 안됐지만 넓고 곧게 뻗어 버스가 지날 때마다 휘발유 냄새 섞인 먼지를 들판에 확산했다.

길이 도로가 됐다는것 말고 「오누이의 집」이 있는 동네가 달라진건 별로 없었다. 서울근교에서 흔히 볼수있는 초가집과 기와집이 반반가량 뒤 작은 마을로 들어가는 어귀에 염색공장과 잡화상과 지서와 신용보급소가 있었더랬는데 염색공장이 버스종점으로 바뀐 것정도가 눈에띄는 변화의 전부였다.

염색공장때문에 마을앞을 흐르는 개천물은 화필(畵筆)을 빤 물처럼 복잡스러운 구정물이었는데 염색공장이 없어지고나서도 조금도 맑아진것 같지않았다. 버스 종점때문인지 상류에 딴공장이라도 생겼는지 물감대신 휘발유냄새와 기름 찌꺼기가 새롭게 개천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흙먼지가 개천뿐이 아니었다. 공기중에도 휘발유 냄새는 골고루 스며있었다. 휘발유로 움직이는 탈것이 날로 늘어나 바야흐로 교통지옥을 이룬 서울 한복판보다 차라리 더 진하고 역겨운 휘발유 냄새였다.

도시가 농촌보다 한발 앞서 선진(先進)을 씻고 급속한 건설과 복구에 성공하고 바야흐로 번영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발작스럽게 도시권을 넓혀갈 60년대 중반이었다.

수지는 눈 부시게 아름다운 여대생으로 성장해 있었다. 몸매는 늘씬하면서도 강인해보였고 상대방을 거침없이 직시하는 눈자가 큰 눈엔 생기와 지성이 함께 넘치고 있었고, 깨끗하고 숱이 고운 살갗때문인지 섬이 우아한 입술이 꽃잎처럼 돋보였다.

옷차림은 굵은 털실로 짠 헐렁한 털스웨터에 슬랙스란 간편하고 수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적인 뛰어난 세련미가 주위의 촌스러움에서 담박 그녀의 모습을 튀게했다.

종점에 내린 수지도 그것을 느끼는지 잠깐 난처한 것처럼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행선지를 의식하고 미리 화장도 지우고 구두 대신 운동화로까지 갈아 신은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혼자서 피식 웃으면서 숄더백을 추슬렀다.

「오누이의 집」까지는 잠깐이었다. 늘 열려있던 녹슨 대문은 더욱 녹이 슬어 푸실푸실 부스러질 듯이 허약해 보이는데 굳게 잠겨져 있었고 「오누이의 집」이란 간판이 붙어 있던 자리엔 초인종의 빨간 배꼽이 달려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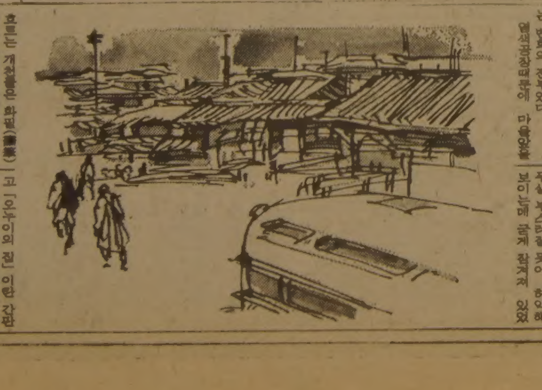
「오누이의 집」이란 고아원이 새로운 고아를 받지 않은지도 벌써 여러해전부터였다. 따라서 고아원 간판도 떼어버리는게 좋을거란 소리는 수지도 몇번 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본시 있던 고아들을 내치거나 딴 고아원으로 분산시키지는 않고 스스로독립해 나갈때까지는 책임지려는 게 원장의 확고한 뜻이라는 걸 알고있었기때문에 수지는 별로 서운해 하지않고 초인종을 눌렀다.

집은 낡아빠졌지만 개울을 끼고있고 숲이 울창하고 전망이 속 시원해서 거기 사는 고아들이 그런대로 복됐다싶은 생각을 수지는 올때마다 했다.

"어머머 수지 학생아냐?"

사모님이 반색을 하며 대문을 열었다.




중 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김창세

## 교민을 위한

# 신년대세일

Pan Asia(한국식품)대표 이모씨는 3만 교민을위해 다음사실에 대해 교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공개 해명해 줄것을 요망함.

①Pan Asia 장미표쌀이 $21.75에 팔아도 되는것을 $24.95씩 팔아 약 7년간 쌀 1자루당 $3씩 더 남겼음은 이번 신문광고를 통해 천하에 밝혀졌다. 한달에 1,700자루를 한자루당 $3씩 계산하면 월 추가이윤은 $5,100, 1년이면 $61,200, 7년이면 $428,400 이란 엄청난 숫자이다. 이를 우리교민들로부터 더 받아 들였으니 이 막대한 금액을 한인회나 교민사회에 반환할 용의는 없는가?

②한인동업자들에게 "이왕이면 한국사람이 경영하는 Pan Asia 상품을 팔아주는것이 더 애국적이고 샘표, 삼양라면등 국산품을 애용하라"고 기염을 토하면서 왜 한 이웃에 있는 한인 모식품점에는 물건을 주지않고, 일본상인과 중국상인들에게는 물건을 공급하는지? 이것이 이모씨의 국산품을 장려하는 애국정신으로 생각하는가?

③Pan Asia 장미표쌀을 돈을받고 팔아놓고, 미국서 D.Y.장미표쌀을 수입했다는 구실로 도로 빼앗아 가려는 것은 Pan Asia장미표가 D.Y.장미표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란히 놓고 팔지 않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자기물건만 안쓴다고 가져간다는 말인가?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가 해명될때까지 교민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 | | REG. | SPEC. |
|---|---|---|---|
| ①장미쌀(가주미)특산미 (CAL ROSE) | 50LB | $21.75 | $19.95 |
| ②참기름 | 1 병 | $9 .95 | $7 .99 |
| ③우동국수. 막국수 | 5 LB | $4 .69 | $3. 69 |
| ④고추가루(최고급) | 1 LB | $2. 59 | $1. 99 |

위의 상품은 한밭식품, 서울식품, 삼복식품점에서만 판매하며, 다른식품점이 취급하는 상품과는 혼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주미(Comet Rice)와는 품질이 다른 것입니다.

한밭식품 274—5401 466 SOUTH SERVICE RD.
서울식품 291—8317 367 PITFIELD RD.
삼복식품 743—8270 2437 FINCH AVE. W.
D.Y. Import Co. 749—0579